



[2020 체인지] 상명하복 NO! 자율근무·토론 YES! "기업이 달라졌어요" 03



Economy

코스피	2197.67 (0.00)	코스닥	669.83 (0.00)
금리 (미국 3년)	1.36 (0.00)	환율 (원-달러)	1156.40 (0.00) (12.31)



경자년 희망을 기다리며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 쥐의 해인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밝았다. 12간지 중 첫번째인 쥐띠는 근검 절약을 바탕으로 부지런하고 재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올해 우리 경제도 쥐띠처럼 부지런하게 희망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쥐띠 해의 첫날인 1일 아침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기다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4차혁명 새 판 짜자 협업·공유 생존모색

비상(飛上) 2020

경계를 허물다

현대차 스마트모빌리티솔루션 집중 삼성 등 전자업계는 전장사업 매진



(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아래) 구광모 LG대표가 올 초 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석·박사 인력을 유치에 힘을 보탰다. /각사

올해 재계 화두는 도전이다. 사업 영역이 빠르게 무너지는 4차산업혁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만 하게 됐기 때문이다. 각자 장기를 특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모빌리티 분야는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꼽힌다. 공유 경제와 자율주행차, 차세대 파워트레인 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 업계는 분야를 넘어 여러 시도들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현대자동차는 재계에서도 미래 모빌리티 선점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회사로 꼽힌다. 전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생산 업체로, 미래에도 시장 주도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분주하다. 당장 수소전기차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사인 독일 아우디와 손잡고 수소차 스택을 공급하는 등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현대차는 자율주행 플랫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일찌감치 자율주행차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도심 주행을 성공하는 등 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 애플과 협력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조 4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수년간 개발 기간을 아낄 수 있게됐다는 평가

가 나온다.

IT 부문 진출도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61조1000억원을 투자해 사업구조를 제품과 서비스로 확대, 스마트모빌리티솔루션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용 비행체(PAV)와 로보틱스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할뿐 아니라, 플랫폼 기반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해 모빌리티 시장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활용해 쇼핑과 결제 등 유통과 금융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첫 걸음도 내딛었다. 최근 설립한 모빌리티사업법인 모션이 설립한국센터 카사업조합연합회와 협력을 약속하고 전국 센터에 통합관리 시스템을 공급키로 한 것이다. <2면에 계속>

/김재욱 기자 juk@metroseoul.co.kr

“변화의 싹... 확실한 성과로 꽃 피울 것”

文 대통령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앞둔 지난달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희망을 품고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한다"며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밝고 더 행복한 새해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에게 보답하는 한해가 되겠다"고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따뜻하고 뜨거운 국민들이 있어 늘 행복 하다" 며 "2020년, 국민들

문 대통령은 "어려움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며 소중하게 되워낸 변화의 싹을 새해에는 확실한 성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일 '2019년을 빛낸 의원 7명'과 함께 한 아차산을 등반하며 경자년 새해 첫날을 맞이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512조 '역대급'... 중복 복지지출 막아야

올해 정부 예산 분석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특히 대내외 경기 악화 등으로 세금수입은 줄고, 과도한 복지로 쓸 돈은 많아지면서 재계와 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최대 예산을 편 정부가 경제 활성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을 모은다.

1일 메트로신문은 올해 정부 예산을 분석하고, 정부가 운용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를 들었다.

◆중복되는 복지예산... "현금성 지원 조절해야"

올해 정부 예산은 512조2500억원이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 6000억원)보다9.1%(42조7000억원) 늘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80조5000억원이다. 국회는 기존 정부가 편성했던 181조6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가량 손감했다. 12개 분야 중 가장 많이 줄였지만, 전체 중 약 25%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방대하다. 또 전년 대비 증가율은 12.1%를 기록했다.

문제는 중복되는 복지예산이 많지만,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중 집행부진·중복 등을 지적하며 각 분야에 편성한 세부 예산을 잇따라 보류하기도 했다. 예결위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현금지원 예산사업 중 중복되는 사업 규모가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국민이 갚아야 할 나라빚도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국가채무는 735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2면에 계속>

/석대성 기자 bigstar@

함께라서 좋은 새해입니다

마음껏 꿈꾸고
서로의 희망을 나누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드는
2020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숨죽인 고가아파트... 마·용·성 등 로또 청약 풍선효과

전문가 올 부동산 진단

고가아파트 시장 주도 줄어들고
상반기 불확실성·변동성 극대화
강남, 마·용·성 등 중저가 강세

올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강보합세가 예상된다. 분양시장은 서울 강남과 마포·용산·성동(마용성) 일대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분양가 규제로 당첨만 되면 '로또 아파트'가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중도금 대출 등이 가능한 분양가 9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아파트 가격 보합세, 거래량 감소

1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12·16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오는 하반기까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연이은 규제가 관망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2020년 주택 시장 전망'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의 올해 매매가는 1.2% 상승할 것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강보합세에 머물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로 예측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강남을 포함해 고가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는 일은 줄어들고 하반기까지 가격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3기 신도시,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유예 등 주요 이슈가 총선과 맞물리며 2020년 상반기는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지방의 경우 지방광역시 강세, 기타 지방 약세흐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과잉공급 문제의 점진적 해소에 따른

하방압력 둔화 ▲지역기반산업 개선 기대감 ▲지방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국지적 기대감 등으로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개선될 전망이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서울 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상승률보다 하락해 보합세로 접어들어 1년간 유지될 것"이라며 "수도권 역시 서울처럼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년 주택매매거래는 전국적으로 작년 대비 8% 증가한 81만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정책 영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2020년 주택시장 5대 영향변수는 ▲주택관련 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 ▲금리 ▲거시경제여건 등이 꼽힌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공급은 10~20% 내외로 감소하면서 ▲인허가(41만호) ▲착공(34만호) ▲분양(25만호) ▲준공물량(46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마·용·성 등 중저가 아파트 강세

2020년 유망 부동산은 여전히 강남과 그 주변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8% 줄어든 0.15% 상승으로 마감됐다. 재건축이 0.29%, 일반 아파트는 0.13% 올랐다.

서울은 전주에 비해 매수세가 줄었지만 여전히 학군, 교통 등 입지여건에 따라 가격이 국지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강동(0.44%) ▲구로(0.25%) ▲금천(0.24%) ▲강남(0.23%) ▲마포(0.23%) ▲노원(0.22%) 순으로 올랐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와 고덕아이파크, 명일동 삼익그린2

차, 둔촌동 둔촌주공 등이 500만~5000만원 상승했다. 구로는 온수동 온수힐스테이트, 신도림동 대림1·2·3차가 500만~3000만원 상승했다.

강남은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개포동 주공고층6·7단지, 압구정동 신현대 등이 2500만~7500만원 상승했다. 마포는 상암동 월드컵파크2·3단지, 성산동 성산시영, 공덕동 래미안공덕2차 등 구축 아파트들이 1000만원~2000만원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고가 아파트보다는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강세로 떠오를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즉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마·용·성 지역 뉴타운 아파트가 분양하면 수요자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격이 9억원 이하, 9억~15억원 대 아파트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다"이라며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자는 자금 마련방법과 투자처를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기자 yw964@metroseoul.co.kr



펭수와 함께 '타종'

1일 새벽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서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과 '자이언트 펭TV'의 펭수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채무 736조, 1인당 1400만원

▶▶ 1면 '512조 역대급...'서 계속

2009년 360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배가량 늘었다. 올해 국가채무는 805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나라빚이 1초에 200만원씩 오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들어 서면서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나라빚은 1400만원을 넘겼다.

◆국회, 미래 투자 중용...핵심은 '4차 산업'

국회는 정부가 '미래'에 투자할 것을 중용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에듀테크 관련 외국 입법례'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학습 콘텐츠 활용과 고도의 ICT(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듀테크'는 교육에 ICT를 결합한 새로운 교육 환경이다. 인공지능(AI)·가상현실(VR)·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까지 포괄해 적용한다. 국회도서관의 제안은 '에듀테크' 활성을 위해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정보화'를 명

시하고, ICT를 이용한 학습 환경을 정치권·학교·교사가 적극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 'VR·증강현실(AR) 산업 정책의 평가와 개선 과제' 현안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 유도와 법적 지원 강화를 독려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하고, 개별 산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이 산업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한국의 정책 지원 실정을 지적했다.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개최한 '미래의 정책결정 방식-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황성수 영남대학교 교수가 나와 "미래의 정책결정 과정은 '증거기반정책결정'의 맥락을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가치와 데이터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수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식대성 기자 bigstar@

삼성·LG 등 IT업계 '전장분야' 최대 격전지

▶▶ 1면 '4차혁명 새 판 짜자...'서 계속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우수' 평가
삼성전자, 자율주행 반도체 앞세워

이 시스템은 렌터카 정보를 빅데이터 화해 관리 편의를 높일 뿐 아니라, 렌터카가 단기 렌탈 등 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IT 업계는 반대로 자동차 사업에 발을 더 깊이 들여놓는 모양새다. 바로 전장사업이다. 자동차가 기계보다는 전자 부품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여러 업체들이 미래 먹거리로 전장 사업을 주목한 상태다.

LG는 일찌감치 전장 사업에서 두각을 드러내온 회사다. LG전자가 만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쉐보레 볼트 EV를 시작으로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웹OS 오토'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퀄컴과 힘을 합쳐 미래차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준비를 마쳤다. 전기차에 장착하는 모터 기술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추세다. 최근에 인수한 전장기업 ZKW도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현대·기아차뿐 아니라 GM과 BMW 등 글로벌 기업들도 LG화학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다. GM과 함께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을 앞세웠다. 이재용 부회장이 전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엑시노스 오토를 론칭했다. 엑시노스 오토는 차량용 반도체 브랜드로 인포테인먼트 뿐 아니라 자율주행을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핵심인 카메라 이미지 센서(CIS) 등을 포괄한다.

통신업계도 모빌리티 시장 가능성을 크게 보는 눈치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은 5G 상용화에 발맞춰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현대차와 BMW 등 자동차 업계와도

합종 연횡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그 중에서도 SK텔레콤은 티맵과 인공지능 '누구'를 활용해 공유차와 주차장 등 모빌리티 분야 여러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며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모빌리티 사업에 무게를 싣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으며, SK네트웍스도 SK렌터카 법인을 새로 신설하고 기반을 다지는데 성공했다.

IT 업계에서는 카카오톡과 SK와 함께 양대산맥으로 꼽힌다. 택시 호출과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T'가 크게 성공하면서 공유차 플랫폼 업계에 '말형'으로 거듭났다. 쏘카 등이 택시 업계와 강하게 맞붙은 상황에서, 카카오톡에 무게를 두고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그 밖에 두산그룹과 LS그룹과 효성그룹도 전기와 소재 등 여러 분야에서 쌓아올린 기술력을 토대로 전장 분야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김재우 기자 juk@

인사담당 절반 "올 채용 작년보다 안좋다"

40% '작년과 비슷' 12% '좋아질 것'
경기전망 '좋지 않을 것' 45% 차지

국내기업 인사담당자 절반 정도가 올해 국내경제와 채용경기에 대해 '작년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일 잡코리아가 국내기업 인사담당자 310명을 대상으로 '2020년 국내경제 및 채용경기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8.4%는 '새해 채용경기가 작년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작년과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39.7%,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란 전망은 11.9%였다.

올해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작년보다 좋지 않을 것'이란 답변이 45.5%로 가장 많았고, '작년과 비슷할 것'(43.9%), '작년보다 좋아질 것'

(10.6%)으로 나타났다.

인사담당자 57.1%는 올해 자사 정규직 직원 채용규모가 '작년보다 더 적을 것 같다'고 답했고, '작년과 비슷하게 채용한다'는 응답은 25.2%였다. 작년보다 더 적게 채용할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67.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기업 경영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42.4%), '인력검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22.0%), '사업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16.4%) 순이었다. /원홍수 기자 hys@

상명하복 No! 자율근무·토론 Yes! “기업이 달라졌어요”

2020 체인지!

① 젊어진 기업

재계가 세대 교체를 마무리했다. 차세대 젊은 총수들이 성공적으로 경영을 이어 받아 조직을 안정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있다. 변신은 필수다. 새로운 시장과 세대에 도전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바꾸고 혁신해 새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메트로신문은 '2020 체인지!'를 통해 지난해 혁신을 살펴보고 올해 사업 방향을 예상해본다.

(편집자주)

삼성·LG·현대차·SK·CJ 등 복장 자율화 통해 변화 단행

재계가 지난해 세대 교체를 단행하고 실용주의 바람에 올라탔다. 겉모습은 물론이고 업무 방향까지도 혁신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복장 자율화다. 1일 재계에 따르면 CJ와 SK, 삼성전자에 이어 LG와 현대차 등 그룹사가 복장 제한을 해제한 상태다.

변화는 이미 2000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CJ와 SK가 복장 자율화를 선언했고, 2008년에는 삼성전자가 '비즈니스 캐주얼'로 복장 규정을 바꿨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변화가 주춤했던 상황인 가운데, 구광모 LG 대표가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빠르게 반전됐다. 2018년 총수로 취임한 후 9월부터 (LG전자가) 주 2회 시행했던 '캐주얼 데이'를 주 5일로 전환한 것.

조직문화 쇄신위해 규정 완화 직급도 폐지... 허례허식 타파 현대차, 임원직급 상무로 통합

그룹사 중에서는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현대차도 지난해 3월 복장 자율화에 동참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혁신 경영 일환으로 선택한 변화다. 이어서 한진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등도 복장 자율화를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러 그룹사가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임직원들이 다소 조심스러워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복장 자율화가 재계 전체에 퍼지면서 복장 자율화가 비로소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가 복장 규정을 완화한 가장 큰 이유는 조직 문화를 쇄신하기 위해서다. 격식과 허례허식을 파괴하고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첫 발 걸음인 셈이다.

실제로 재계는 지난해 복장 자율화와 함께 격식을 파괴하기 위한 시도를 가속화했다.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직급 파괴다.

삼성전자와 계열사는 지난해 직원 직급을 '프로'로 일원화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페셔널 ▲시니어 프로페셔널 ▲프린스플 프로페셔널 등으로 나누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가운데)이 임직원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최태원 SK 회장은 행복을 전면에 내걸고 임직원들과 행복토크 100회 릴레이를 펼치는 등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SK

만, 서로를 부를 때는 프로로만 부르고 있다. 제일기획(현 삼성물산)에서 먼저 도입했던 제도를 전사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대차그룹도 지난해 복장 자율화에 이어 직급을 매니저와 책임매니저로 단순화하는 변화를 단행했다. 이사-상무-전무였던 임원도 모두 상무로 통합했다.

SK그룹도 직급 폐지에 한창이다. SK텔레콤이 2006년부터 직급을 매니저로 변경한데 이어, 하이닉스도 지난해 TL(테크니컬리더)과 PL(프로젝트리더)로 간소화했다. 최근에는 임원 체계를 없애고 '부사장'으로만 부르도록 했다. 임원 인사도 직무를 중심으로만 발표됐다.

LG도 2017년 사원과 선임, 책임으로 직급을 단순화했다.

앞서 CJ그룹과 네이버는 모든 직급을 없애고 '남'으로 서로를 부르기로 했다. 롯데그룹은 수석과 책임, 실무자로 바꿔 시행 중이다. 카카오그룹도 서로를 영어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직급 폐지는 복장 자율화보다 강력한 조직 수평화 정책으로 평가된다. 직급에 따른 상명하복 문화를 혁파하고,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관문이라는 설명이다.

당장 보고 체계가 크게 간소화된다. 말단 사원이 결재를 받으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논의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직급 체계 단순화 이후에는 곧바로 팀장급에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회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전언이다. 위계 질서보다는 창의적인 의견을 중요시하면서, 자유롭게 주장을 개진하고 논의하게 됐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상명하복 혁파로 자율성 유도 보고체계 간소화로 업무 혁신 탄력근무제 등 근무시간 유연

해외 시장 개척도 수월해졌다는 증언도 나온다. 종전까지는 대리나 차장 등 직급을 거래처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편한 일을 겪기도 했지만, 직급이 간소화되면서 접근하기 편해졌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직급을 폐지한 후에는 말단 사원부터 장기 근속자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분위기가 됐다”

며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같은 변화는 MZ세대(밀레니얼 + Z세대) 인재들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연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수평적인 분위기를 중요시하는 MZ

세대 인재들에 쾌적한 근무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근무 시간 유연화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탄력 근무제는 주나 월 단위에 서 주어진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출퇴근을 자율화하는 제도다. 2018년 삼성전자와 현대차, LG그룹과 SK그룹 등이

각자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주 52시간을 지키면서도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직원들은 각자 근무 여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들리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동을 창조하는 기술 -

새해에도 LS는 당신 가까에서
최고의 역량과 존중의 파트너십으로
세상에 더 큰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기만의 가치중시... '가성비' 보다 '가심비'

비싸도 내가 좋으면 OK, 소비트렌드 변혁 주도

2020 밀레니얼이 온다

밀레니얼 세대 전체 인구의 약 22% 외식 줄고 편의점 도시락·간편식 증가
구독경제, 소비생활 전반으로 확대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1996년 사이 출생)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로 부상함에 따라 유통업계 지형도도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자란 세대로 인터넷과 친숙하며, 자아실현, 경험, 재미 등 본인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도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따지며 가격이 비싸더라도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선호한다. 이들의 독립적이고 가치중심적인 성향은 내년에도 소비 트렌드를 좌우할 전망이다.

◆ '나 혼자 먹는다'

'혼밥'을 즐기는 젊은 싱글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맞벌이 부부 20~30대 소비자들이 늘면서 외식 빈도와 비용은 증가했지만, 국내 외식시장은 쪼그물져 있다. 이들은 주로 배달 외식과 편의점 간편식, 밀키트 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19년 외식소비 행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 월평균 외식빈도는 지난해 3.4회에서 올해 4.2회로 0.8회 증가했고, 1인 월평균 외식 비용도 지난해 3만8928원에서 올해 4만9920원으로 1만 992원 뛰었다.

특히 20대의 혼밥 비중이 두드러졌다. 20대는 외식횟수 월 평균 13.3회 가운데 1인 외식이 6.0회(45.1%)를 차지했다.



롯데백화점 롤루레온 매장에서 고객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롯데쇼핑 갤러리아 고메이494 한남

/갤러리아백화점

최근에는 배달앱 이용 성장세에 따라 배달 외식 부문에서 특히 소비자 행동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음식점 선택 요인 조사에선 최근 배달 앱 이용 확산세에 따라 2017년에는 순위에도 없던 '주문 편리성' 항목이 지난해 처음 3위(27.5%)에 올랐다. 올해는 그 비중이 30% 가까이(29.5%) 높아졌다. 선택 요인 1, 2위는 각각 '맛'(70.2%)과 '가격'(46.9%)이 꼽혔다.

편의점 도시락이 발달하면서 '편도족(편의점 도시락을 즐겨먹는 소비자)'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지난 1개월간 편의점 식사 경험을 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58.7%로 절반을 넘어섰다. 편의점 식사 빈도는 주 1.6회, 월 5회로 1회당 5849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제품은 도시락이 4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김밥·주먹밥이 28.5%, 햄버거·샌드위치 14.0%, 다양한 간편식이 9.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시대에 혼자 식사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며 "또한, 취향이 다양화 세분화하면서 다양한 1인메뉴가 등장하고 있어 1인 외식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번 결제도 번거롭다! 구독경제 확산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통업계를 강타한 화두는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다. 정기 구독료를 내면 특정 날짜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화나 음악같은 미디어 콘텐츠는 물론, 식품, 뷰티 등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구독경제의 대표적인 미디어 모델은 '넷플릭스'를 꼽을 수 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영화나 TV콘텐츠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

이커머스 기업 쿠팡은 2015년 3월 정기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아동용품은 비롯해 휴지, 생수 등 생필품을 정기배송해준다. 배송 날짜와 배송 주기를 선택하면 매번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는 약 40만명이다.

CJ ENM 오쇼핑부문의 경우 여성 주기에 맞춰 생리대를 받아볼 수 있는 정기배송 서비스를 론칭했으며, 오설록은 차(茶) 정기구독 서비스인 '다다일상(茶茶日常)'을 정식 개시하기도 했다.

고객들에게 매월 오설록이 추천하는 차, 다구, 소품 등을 함께 큐레이션해준다.

소비자는 제품을 고르고 구매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은 고객을 오래 묶어두는 록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소비위축에도 VIP 명품 소비는 계속

올해 백화점 3사의 명품 매출 비중이 30%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명품 주 소비층인 VIP 고객을 잡기 위한 마케팅은 내년에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 세대가 소비 주도세력으로 급성장하자 신세계백화점은 VIP자격을

조건을 '연간 400만원 구매'로 낮추는 등 젊은 VIP 유치를 위한 모습을 보였다. 신세계 강남점은 1층에 전 세계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색적인 콘셉트와 함께 다양한 상품을 한데 모아 소개하는 '더 스테이지'를 운영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은 명동 본점 리뉴얼 과정에서 '백화점 1층=화장품 매장'이라는 공식을 깨고 1층을 명품매장으로 채웠다.

갤러리아백화점은 내년 '고메이494 한남'을 오픈한다. 갤러리아 F&B 콘텐츠인 '고메이 494'에 VIP 라운지 '매종 갤러리아'가 결합된 공간이다. 갤러리아는 이곳을 통해 VIP 고객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갤러리아 측은 "고메이494 한남"을 시작으로 주요 고급 주택시설 니즈에 맞는 프리미엄 도심형 복합플랫폼 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도 소비위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VIP의 명품 소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백화점의 VIP 마케팅은 매출 호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U 편의점 도시락

/BGF리테일



넷플릭스 CI

/넷플릭스



오설록 정기구독 서비스 다다일상 12월 구성 품목

/아모레퍼시픽



2020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LG가 소망하는 건
고객 여러분의 더 행복한 한 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갈 곳 잃은 시중 자금 1000조 증시보단 빌딩·상가·펀드 기웃

2020 흔들리는 자산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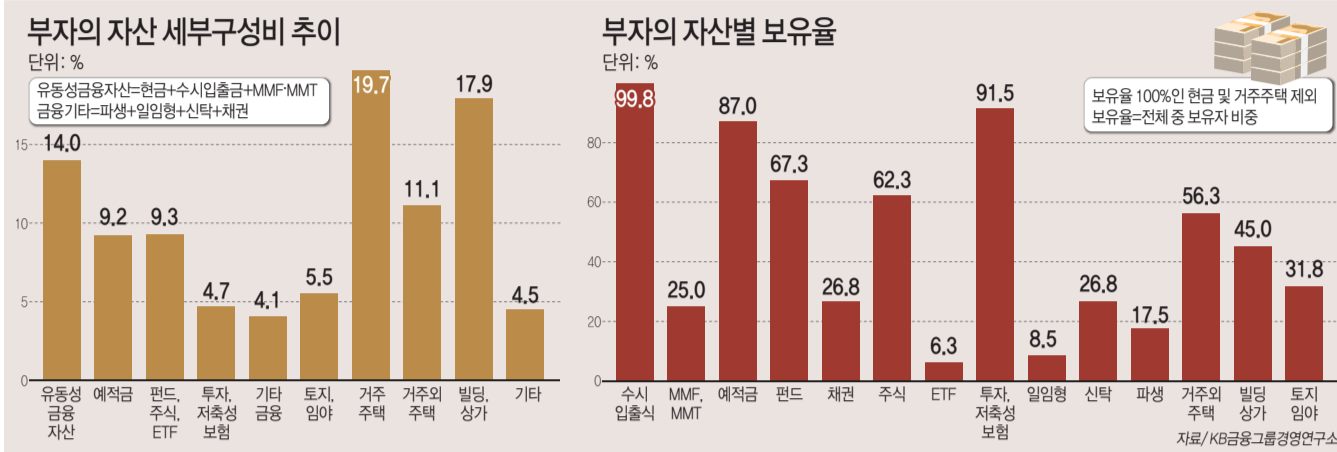
작년 기준 금융자산 10억이상 32만명 투자처, 빌딩·상가, 거주외 주택 順 서울외곽 5억대 아파트 유망투자처 MMF 10조 줄고 투자자예탁금 늘어

“고수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지만 하수는 분위기에 편승한다.”

투자고수의 특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투자의 달인인 그들은 보통 사람과 달리 투자를 한다. 지난해 코스피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등이 겹쳐 롤러코스터를 타다 막판 미중 무역협상 진전으로 반등하며 2197.67로 마감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자산가들의 돈은 어디에 몰릴까. 갈 곳 잃은 시중자금의 행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19 한국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자산가는 3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자산은 거주주택이 19.7%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빌딩·상가(17.9%), 유동성금융자산(14.0%), 거주외 주택(11.1%), 펀드·주식(9.3%), 예적금(9.2%)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빌딩·상가(24.8%)를 지목했다. 이어 거주외 주택(13.8%), 거주 주택(12.5%), 주식



(12.0%), 토지·임야(9.5%)가 뒤를 이었다.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서 부동산 말고는 마땅히 투자할 만한 곳이 없다는 분석이다.

◆12·16 부동산 대책...그래도 믿음 건 부동산?

올해 자산가들은 보수적으로 부동산 투자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큰 시세 차익을 보기 힘들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비싼 집을 보유한 만큼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부동산을 더 이상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지난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의 핵심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고 대출을 억제해 부동산으로 쏠리는 과도한 투자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책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의 LTV(주

택담보대출비율)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40%에서 20%로 하향하고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로 10주만에 전주(0.2%)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4구는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급격히 축소됐다. 12·16 부동산 대책 방안이 고액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 명이다.

자연스레 자산가들의 자본은 상가, 오피스빌딩 투자에서부터 부동산펀드로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 외곽의 5억 원대 아파트가 유망 투자처로 꼽힌다. 대출 규제와 취득세 등 이번 대책의 영향이 거의 없고,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파트 투자가 까다로워지면서 상가나 오피스텔도 대체

투자처로 주목 받고 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매입 비용은 비싼데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공실률이 높아 타격이 크다”며 “상품마다 입지, 시설 등이 달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형 부동산 중 올해 유망 투자처로는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이 거론된다. 이르면 올해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해 배당소득에는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증시의 부활...뭉치듯 증시로 향할까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던 유동자금이 증시로 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증시의 여러 호재성 이슈들로 인해 부동산 투자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부동자금으로 평가 받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합한 수치는 지난 10월 기준 972조원에 달한다. 약 1000조원의 자금이 시중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단기 대기성 자금인 MMF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0조원이 줄어든 반면 국내 주식형펀드에는 4조원이 유입됐다. 증시자금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투자자 예탁금은 부동산 대책발표 전인 지난달 13일 24조9482억원에서 26조7400억원으로 7.2% 증가했다.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잔고도 마찬가지로 48조 8801억원에서 51조 1916억원으로 늘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단기 자금의 흐름이 주식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투자자를 끌어 들일 수 있도록 한국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 개선은 물론 증권거래세 개편 등으로 증시 활성화가 선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정부가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유인하고 있고, 내년도 한국증시의 상승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다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선 경제여건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기 위해선 세제개혁 등 정부 정책 외에 기업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저금리 증시 속 진주... 연평균 5% 상회 '고배당주', '리츠' 주목

2020 투자 유망 상품

차익 더불어 연 2%대 수준 배당수익 매 1월 배당금 상향 종목군 성과 높아 주요종목 SK하이닉스, SKT, GS 등 상장사 배당성향 높아지는 추세

올해 자본시장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배당'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장사는 배당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배당 종목인 리츠(REITs)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가 꼽은 경자년 투자 화두는 '배당'이다. 저금리 시대에 주가 차익과 더불어 연 2%대 수준의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 투자는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일 “매년 1월에는 배당금이 상향된 종목군의 성과가 높다”면서 “이런 흐름은 2월까지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배당수익률과 영업이익률이 각각 1.5%와 5%를 상회하는 고배당, 고영업이익률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천종목 10선>

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12/19)	수정주가 (12/19)	수정DPS (12/19)	배당수익률 (12/19)	영업이익률 (12/19)	12MF PER (12/19)	12MT PBR (12/19)
A000660	SK하이닉스	68,141	93,600	1,500	1.6	23.0	13.2	1.2
A105560	KB금융	20,655	49,400	1,920	3.9	8.5	6.3	0.4
A017670	SK텔레콤	19,621	243,000	9,000	3.7	6.6	13.0	0.8
A078930	GS	4,850	52,200	1,900	3.6	11.2	5.2	0.5
A036490	SK머티리얼즈	2,011	190,700	3,750	2.0	28.9	12.2	3.5
A051600	한진KPS	1,836	40,800	1,790	4.4	17.1	12.1	1.6
A056190	에스에프에이	1,611	44,850	1,278	2.8	13.7	8.8	1.7
A139130	DGB금융지주	1,262	7,460	360	4.8	6.6	4.0	0.3
A028150	GS홈쇼핑	1,011	154,000	7,000	4.5	11.1	8.7	0.8
A267270	현대건설기계	599	30,400	850	2.8	6.6	7.1	0.5

주: 수정DPS는 분기 지급된 배당 제외. 영업이익률(OPM)은 최근 4개 분기 누적 기준 /자료=Quantwise, 한국투자증권

시장에선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종목으로 SK하이닉스, KB금융, SK텔레콤, GS, DGB금융지주 등을 꼽고 있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권 활동으로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면서 상장사들의 배당성향(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의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올해도 역대 최고치의 배당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현금배당 총액이 3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2018년 배당 총액은 3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 예상된다. 올해는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리츠 역시 올해 새로운 투자 키워드다. 재산세 분리과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취득세 30% 감면 등 세제 혜택에 힘입어 대세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리츠는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투자자들은 3개월에서 1년 단

위로 약 연평균 5% 안팎 수준의 배당을 받는다.

해당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매각 차익도 투자자들에게 배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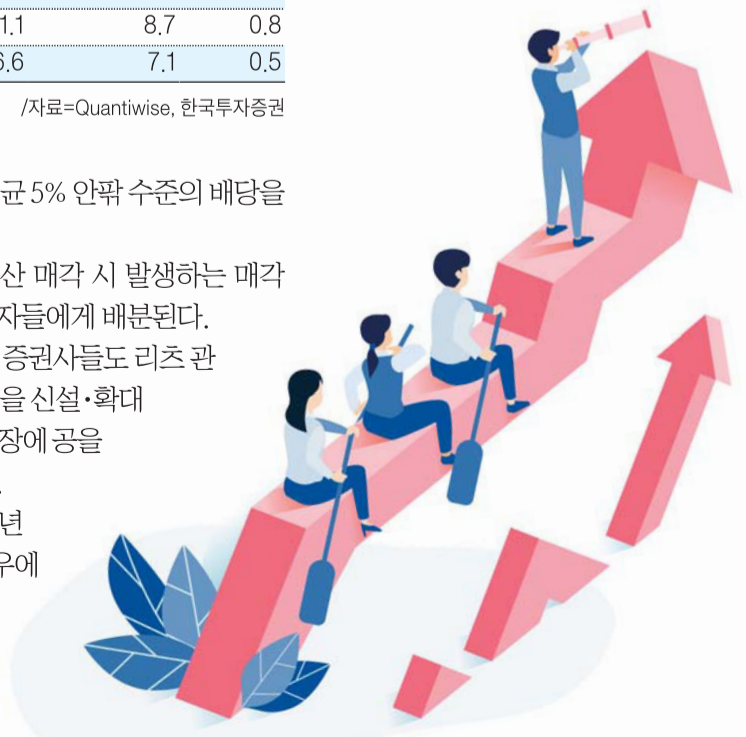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리츠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확대하며 리츠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018년 미래에셋대우에

이어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등도 리츠 관련 조직을 만들어 신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가 공모리츠에 대해 분리과세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는데 이는 토지분 종부세 면제를 의미한다”며 “앞으로 더 큰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은지 기자 sonumji301@



새해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구상 시인의

새해

중에서



2020년,
언제나 당신을 설레게 하는
새로운 내일을 기원합니다

HYUNDAI
MOTOR GROUP

“SUV·고급·친환경차 강세... 글로벌 車시장 회복 불투명”

韓자동차기자協 시장 전망 세미나

신흥국 경제는 회복, 선진국은 후퇴 자동차 시장 올해비 0.4% 증가 추산 보호무역·유가하락 등 원인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올해에도 정체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 투자가 크게 확대하는 가운데, 판매 전략 고민도 더 늘었다는 분석이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최근 서울 양재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2020년 글로벌 자동차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현대차그룹의 이보성 글로벌경영연구소장은 올해 세계 경제가 3%대 저성장일 것으로 내다봤다. 신흥국 경제가 회복 초기로 돌아서는 반면, 선진국은 후퇴하는 분위기라 분석했다.

자동차 시장 규모 역시 올해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추이와 예상치〉

지역	2019년		2020년	
	판매	전년비	판매	전년비
세계	8695	-5	8730	0.4
미국	1708	-1.1	1680	-1.6
서유럽	1756	-1	1703	-3
중국	2050	-10.9	2130	3.9
인도	292	-13.5	303	4
브라질	264	6.8	273	3.2
러시아	176	-2.1	175	-0.6
아세안	352	0	372	5.5
중동	241	-16.3	226	-2

(단위:만대) /자료=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다. 신흥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는 반면 미국과 서유럽 시장이 부진한 탓이다. 지난해 5%나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모처럼 반등이지만, 업계 분위기는 여전히 어둡다는 얘기다. 보호무역 및 미중무역분쟁과 유가 하락이 원인으로 꼽혔다.

지역별로는 서유럽이 -3%로 가장 하락폭이 컸다.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배출가스 규제강화와 제조사 판매물량 조정 등 때문이다. 중동도 소비력이 줄면서 판매량이 2% 줄어든 전망이다.

미국도 -1.6% 감소를 추정했다. 경

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1.1%)에 이은 2년 연속 하락세다. 판매대수로는 1700만대선이 무너지게 됐다. 무역갈등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와 함께, 신차 가격 부담으로 일부가 중고차시장으로 넘어간 영향이다. 러시아도 정부 지원 축소와 구매력 약화 등으로 -0.6%가 예견됐다.

그나마 신흥 시장은 대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동남아시아를 의미하는 아세안 시장이 5.5%나 확대되고, 인도도 경기 회복으로 지난해(-13.5%) 큰폭의 불황을 딛고 다시 4% 성장할 전망이다. 중국(3.9%)과 브라질(3.2%)도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차종별로는 SUV 인기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판매 비중이 36.9%로, 판매대수도 2.8% 증가한 1056만대를 내다봤다. 지역별로도 SUV 선호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고급차 성장도 세계 트렌드 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해 1027만대에서 올해 1056만대로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됐

다. 중국 등 신흥국가 구매력이 높아진 데다가, SUV를 중심으로 고급차 라인업이 크게 확대한 영향이다.

특히 전기자동차 시장은 연대 최대치인 29.3%나 성장할 전망이다. 연간 판매량은 555만대다. 중국이 내년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앞두고 판매량을 크게 늘리며, 유럽도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전동차 시장 성장이 확실하게 점쳐진다.

이 소장은 시장 회복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전세계 자동차 업계가 시장 침체와 동시에 미래차 투자 압박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원가절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가하락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다며, 전동차와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 고민도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업계가 다소 소극적인 분위기로 돌아서는 추세라며, 소비자에 적절한 가격과 수익성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전자, ICT+AI '패밀리 허브' 냉장고 공개 '저유황 선박유' 정유업계 수익성 핵심요소로

맞춤형 식단·레시피 제안 기능 추가

삼성전자가 1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0에서 5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한 '패밀리 허브' 냉장고 신제품을 공개한다.

삼성 냉장고 패밀리 허브는 2016년 업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제품이다. 매년 혁신 기능을 추가하며 호평을 받아왔다.

이번 신제품은 한 단계 진화한 인공지능 '푸드 AI'를 적용했다. ▲맞춤형 식단과 레시피 제공 ▲내부 식재료 자동 인식 ▲더 간편해진 식료품 온라인 주문 등이 가능하다.

맞춤형 식단과 레시피를 제안하기 위해 '푸드 서비스 관리'와 '식단 플래너' 기능도 새로 추가됐다. 구성원들이 사전에 등록한 선호 음식을 기반으로 자주 활용된 식재료가 무엇인지 분석해 각자



2020년형 패밀리 허브 냉장고 /삼성전자

의 식성에 맞는 맞춤형 식단과 레시피를 추천해 주기도 한다.

내부를 확인하는 '뷰인사이드' 기능은 더 업그레이드했다. 단순히 내부 식재료 확인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냉장고가 보관된 식재료를 스스로 인식해 새로 추가하거나 남은 식재료 정보를 '푸드 리스트'에 반영할 수 있게 해준다. 보관한 재료로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도 제공한다.

필요한 물품을 '쇼핑 리스트'로 보낼 수 있으며, 패밀리 허브에서 온라인 주문까지 가능하다. 이마트를 통해 주문 가능하고, 후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키워드로 보는 산업이슈

〈1〉 IMO2020

IMO 환경규제로 정제마진 상승 기대 고도화 설비 갖추고 저유황 수요 대비

올해 IMO(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가 시작되며 해운사를 비롯해 조선·정유업계에서도 그 동향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IMO2020'이란 174개국을 회원으로 보유한 국제해사기구(IMO)가 전세계 선박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규제다.

이에 따라 선박을 보유한 선주들은 IMO2020의 규제에 대응해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스크러버'를 선박에 설치하거나 엔진 자체를 친환경 에너지원인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LNG 추진선'으로 교체 혹은 선박에 사용하는 기름을 저유황, 즉 '경유'로 바꾸는 것이다.

이번 환경규제는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조선·정유업계의 관심도 받고 있다. 해당 환경 규제에 따라



SK에너지가 IMO2020에 따른 저유황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약 1조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VRD S(감압잔사유탈환설비) 공사 현장. /뉴시스

조선사는 선박 신규 발주의 수혜를, 정유사는 저가의 벙커 대신 고가의 경유를 더 판매하게 되는 만큼 정제마진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유업계의 경우, 지난해 탈석유 흐름과 함께 전세계적 공급과잉·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요둔화 등 각종 대외 변수가 겹쳐 정제마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 IMO2020 시행에 따른 정제마진의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유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저유황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고도화설비 등을 갖추, 올해 수익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 정유사인 SK에너지의 노베이션의 정유사업 자회사 SK에너지는 원유에서 경질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인 '잔사유'에 수소를 첨가해 탈황 반응을 일으켜 저유황을 생산하는 'VRDS(감압 잔사유 탈황설비)'를 3~4월 상업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쓰오일은 이미 복합석유화학시설인 'RUC(잔사유 고도화 설비)'와 'ODC(올레핀 하류 시설)'을 통해 저유황과 고부가가치의 화학제품인 폴리프로필렌(PP)·산화프로필렌(PO) 생산에 나섰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삼성전자, 8K 협회서 QLED 전 제품 '8K 인증'

해상도·압축방식 등 다양한 기준 포함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QLED 8K 제품 전 제품에 8K 협회 '8K 인증'을 획득했다고 1월 1일 밝혔다.

8K 인증은 ▲해상도 7680x4320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 600니트 이상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HDMI 2.1 적용 ▲압축 방식 HEVC 확보 등 8K 디스플레이와 콘텐츠에 관련된 다양한 인증 기준을 포함한다.

8K 협회는 그동안 8K 생태계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회원사 확보에 주력해왔다. TV 제조사뿐 아니라 패널 제조사, 칩셋 제조사, 콘텐츠 제작사, 스



8K 인증 /삼성전자

트리밍업체, 장비업체 등 다양한 분야 22개 업체가 참가했다.

8K협회는 지난 9월 8K 인증 기준을 발표했으며, 8K 시장 업계 공통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8K 경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8K 인증 기기 확대, 고품질 비디오 콘텐츠 시장 확보, 업계 성장을 위한 8K 기술 로드맵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냉장고에 한층 더 진화된 AI 적용

CES서 'LG 인스타뷰 씽큐' 공개

LG전자 냉장고가 더 똑똑해진다. LG전자는 1월 7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0에서 'LG 인스타뷰 씽큐'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LG 인스타뷰 씽큐는 ▲냉장고 내부

카메라 ▲전면 투명 디스플레이 ▲노크 온 기능을 적용했다. 사용자가 문을 열지 않고도 냉장고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고, 문을 여닫는 횟수도 줄여준다.

특히 기존 제품보다 한층 더 진화된 인공지능(AI)을 적용했다. 내부 식재료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남아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방법을 추천하고, 식

재료가 떨어지면 주문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도 한다.

도어디스플레이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없이도 무선인터넷(Wi-Fi)을 이용해 레시피를 검색하고 동영상 볼 수 있다.

프로액티브 서비스도 제공한다. 제품 설치부터 사용, 관리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상태로 제품을 관리해주고, 작동상태를 분석해 예상되는 고장을 사전 감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재용 기자

신년사로 본 금융권 경영전략

“디지털금융 도래... 리스크 관리, 고객신뢰 갈수록 중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모든 이해관계자 가치 높여야”

김광수 농협금융그룹 회장

“공급자 중심→소비자 중심 전환”

진옥동 신한은행장

은행권 첫 ‘목표 달성률 평가’ 도입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그룹 회장

2020 경자년을 맞은 금융권의 화두는 ‘리스크 관리’와 ‘고객 신뢰 회복’이다. 금융권 역시 저성장·저금리·저물가의 3저(低) 현상의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는 데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고객 신뢰 역시 무너진 상황이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진출도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가치관과 기술이 급변하는 2020년대에는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행복을 나누지 않으면 신뢰받기 어렵다”며 “이제 손님 중심에서 손님과 직원, 주주, 공동체를 아우르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더이상 ‘손님의 기쁨’이 아닌 ‘모두의 기쁨’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룹의 사업모델과 프로세스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디지털 금융혁신을 선도해 새로운 비즈니스로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고, 혁신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혁신성장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도 소비자 중심으로...”

김광수 농협금융그룹 회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지금까지 어느 한 해 경영여건이 좋았을 리 없었지만 올해는 특히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있을 많은 변화가 생존의 시험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본격적인 디지털금융 시대의 도래로 전통적인 영업채널과 영업별 경쟁구도가 재편되고 있는 등 금융회사 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과거 공급자 중심의 우월적 지위가 소비자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판단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고객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본업과 혁신을 모두 놓치지 않는 은행으로 나아가길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올해부터 새로운 성과평가체계인 ‘같이 성장(Value up together)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단순 상품판매 중심의 기존 성과평가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판매 및 사후관리 여부를 평가하고, 은행권 최초로

‘목표 달성률 평가’를 도입한다.

디지털 전략으로는 오픈뱅크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금융플랫폼으로 고객중심의 디지털금융을 제공한다. 1100만 이용고객의 ‘신한솔(SOL)’을 중심으로 완전한 디지털 기업으로 탈바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사업은 신년이 진출한 20개 국가별로 보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추진하며, 각 국가에 진출한 카드, 금투, 생명 등 계열사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KB국민은행은 예상 가능한 모든 리스크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의 이자이익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투자심리 위축과 시장 침체 등으로 비이자이익 역시 기대가 힘든 상황이다.

허인 국민은행장이 잡은 2020년 목표는 ‘견고한 경쟁우위 확보를 통한 고객·직원 중심의 KB 달성’이다. 고객지향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

사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고도화하고, 리스크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 디지털 혁신 가속화

KEB하나은행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과 글로벌·디지털 혁신 가속화다.

먼저 고객 수익률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확대하고, 고객관점의 완전판매를 시스템화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은행의 문화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현지 금융기관 인수합병(M&A)과 지분투자, 현지 사업자 제휴 등 해외 진출은 다각화한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은 디지털 전환에 좀 더 중점을 둘 계획이다. ‘더 새롭게,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끊임없이 설계하고, 농협은행만의 사람냄새나는 ‘따뜻한 디지털 은행’을 구현한다.

농협금융그룹 차원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물론 기획부터 출시,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한다. 이와 함께 그룹형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해 각 계열사별로 분산된 사업을 재구성하고, 고객·상품·서

비스의 통합관점에서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 계열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2020년 경영목표를 ‘신뢰·혁신·효율’로 잡았다.

먼저 고객 중심 성과평가와 영업문화 개선 등으로 고객신뢰를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해 글로벌·기업투자금융(CIB) 등 미래성장분야를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BIB(Bank In Bank) 체제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 당국 정책화두는 ‘혁신금융’

금융당국은 올해 정책 화두로 ‘혁신금융’을 꼽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2020년은 기술력·미래성장성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한 혁신금융을 화두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성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변화 적극수용·국민 니즈 충족으로 새 성장동력 확보해야”

금융 단체장 신년사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소비자이익 최우선, 신뢰 높여야”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저금리 시대, 새 제도 적극모색”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협회 등 주요 금융단체장은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장영역을 개척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등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지만 금융 산업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환경에 맞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면 변화된 금융환경은 분명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상품, 서비스와 조직 문화 전반에 고객이익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비자 중심의 영업문화 정착과 소비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고객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저금리·고령화·저출산 등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자산관리, 재산증식 수단 제공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상품 수요도 다변화하고 있다”며 “신탁업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다양해진 국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 경제 혈액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로써 국가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한편 우리 금융의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과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저금리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두 협회장은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경쟁력 강화, 신뢰 회복, 새로운 시장영역 개척 등을 강조했다.

신용길 회장은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가 또다시 인할 가능성이 예측된다. 어쩌면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도전에 마주할 수 있다”며 “저금리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고금리 계약의 부채적립 부담이 높아져 이차역마진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경우 도입시점의 금리 수준에 따라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

도적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계 스스로 자산·부채 구조개선과 자본확충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저금리 환경에서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연착륙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덕 회장도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그간 우리가 누려왔던 양적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새로운 시장영역을 개척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생활속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을 끊임 없이 개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약 89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을 위한 반려동물보험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

며 “관련 법·제도 정비와 함께 새로운 상품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올해 과제로 혁신적인 사업모델 개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 소비자 신뢰 회복 등을 언급했다.

그는 “손해보험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있다”며 “소비자에게 선택받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모집, 유지관리, 보험금 지급 등 보험 전 과정에서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가맹점 수수료 산출 중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에는) 당면한 현안과제의 신속한 마무리에 주력하겠다”며 “적격비용 재산정이 가맹점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시키는 장치로 활용되기보다는 실질적인 시장가격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카드사가 간편 결제 등 다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후 기자 hj89@

전세대출 갭투자 차단... 2주택 이상보유시 대출금 회수

새해 달라지는 제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혜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취업취약계층·취업준비생·근로자 혜택 등을 늘리고, 소비 활성을 위한 개정 세법도 도입했다. 4차산업시대에 따라가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했다.

1일 <메트로신문>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 분야 주요 제도를 한 곳에 모았다.

9억 이상 주택 보유자 종부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범위 축소

가장 많이 국민의 주목을 받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먼저 정부는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준다. 올해 상반기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도 오른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공제혜택을 축소했다. 토지나 건물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범위를 줄였다. 기존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 기간에 관계없이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달부터 매도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조건 불충족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 세율은 0.1~0.8%포인트 인상한다. 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도 함께 시행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 시 대출금을 회수하는 규제도 시행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시세차익)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은 2월 21일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 무효·취소 때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는 의무 공개해야 하며 주택연금 가입대상자는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민간기업 노동자 15일 유급휴일 추가

오는 4월부터는 제주도에 갈 때도 해외여행 때처럼 면세품을 살 수 있다. 또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거제 등에서 골프장을 이용하면 세금을 75% 줄여준다. 10년 이상된 차를 새 차로 바꿀 때는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쓴 접대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도 연간 26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4대 보험 등이 최저임금과 함께 상승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커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는 6.46%에서 6.67%로 3.2% 인상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경력 단절 여성은 소득세 감면을 70%나 해준다. 경력 단절 여성의 세액 감면 요건은 퇴직 전 1년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해 3~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하는 경우 인정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

근속 지원을 위한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소득세는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국가가 지정한 공공서 유급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된다. 민간기업 노동자도 연간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보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월부터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만명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한다.

1분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대형마트 자율포장 서비스 중단

올해 1분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발급하는 전자여권은 남색이다. 또 주민등록증에는 보안요소를 추가했다. 새로 도입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 모양을 유지하면서도 내구성을 높였다.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강화했고, 폴리염화비닐(PVP)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뀌 훼손되지 않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해 복제도 어렵게 만들었다.

편의점·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온다. 현금·상품권으로 계산한 다음 거스름돈을 직접 받지 않고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와 연결한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의 자율포장 서비스는 없어진다. 불필요한 폐기물을 축소한다는 취지다. 주류 광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볼 수 없다.

화장품 성분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의무를 확대했다. 화장품에 사용하는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경우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영·유아용 제품류(만 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 함량도 표시하도록 했다.

자궁 등 여성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 비용 지원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상복부·하복부·비뇨기·응급·중환자·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 일환으로 올해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한다.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다.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2030년 결핵발생률을 10만명당 1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1:1 결핵환자 관리 등 대책도 수립했다.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안심벨트 지원 참여기관은 7개소에서 10개소로 늘렸다.

인지지원등급자도 차매안심센터 내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시간은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했다. 차매전문병동을 설치한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도 5개 병원을 추가로 설치한다. 차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와 양성교육비,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도 신규 지원한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2020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교육부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 현행(2019년 2학기) 고 3학년 → 고 2·3학년 (2020학년도)
-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현행 29만원 → 42만2천원 (2020년 3월)

여성가족부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재 35개소 → 60개소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 현재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만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청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 현재 280개소 → 310개소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2020년 상반기), 흉부(유방)·심장 (2020년 하반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생계급여 사각지대 완화,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 강화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소득하위 40% 어르신(325만명)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 노인일자리 64만개에서 74만개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에서사회참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 제공
-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 지원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 (2020년 5월 1일)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1,048천원에서 1,078천원으로 인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우(Windows)7 기술지원 종료
-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위협 발생 가능
•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거나 상위버전으로 업그레이드 권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종료일 이후 악성코드 탐지 등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 지원대상 : (미래기술육성) 혁신성장 및 미래기술 분야 영위 중인 업력 3~10년 기업
• (고성장촉진)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 3~10년 기업
• 대출한도 :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
• 대출금리 : (업력 7년이상) 정책자금 기준금리, (업력 7년미만) 정책자금 기준금리△0.2%p

2020년 새해에도
 가족의 건강은 베콤씨로!
 한 끼의 완성
베콤·씨[®] 정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소·부·장 독립 이끌 강소기업 55곳 韓 산업의 허리 받친다



강소기업 100 출사표

1차 55곳 엄선... 빈자리 추가 공모 전기·전자, 기초 소재 등 두루 포함

2020년 대한민국 산업의 허리는 지난해 1차로 선정된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55곳이 튼튼하게 받쳐나갈 전망이다.

이들 강소기업은 전기·전자(16개), 반도체(10개), 기계금속(8개), 디스플레이(8개), 자동차(7개), 기초화학(6개) 등 모든 소·부·장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돼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이들 소부장 기업이 완벽한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 1곳당 5년간 최대 182억원 등 전주기에 걸쳐 전폭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강소기업 100' 가운데 55곳을 제외한 나머지 빈자리 45개는 올해 추가 공모를 통해 채워나갈 계획이다.

◆1차 '소·부·장 강소기업 100' 면면은? 중복 청주 오창에 위치한 아이티캠, 2005년 설립한 이 회사는 감광재료, 전자재료, 원료의약품 등 정밀화학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유기합성 전문 강소기업이다. 2018년 매출은 약 220억원 정도다.

아이티캠의 주요 제품은 일본이나 독일 등에서 주로 수입하는 폴리이미드, 폴리이미드는 열에 견디는 성질이 뛰어나 고온의 연료전지, 디스플레이, 군사 용도의 유기 재료 등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소재다.

아이티캠은 투명폴리이미드 필름에 사용되는 F-아이템과 T-아이템 같은 핵심모노머 2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특히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모노머보다 순도와 투명성을 개선해 고효율 투명폴리이미드 필름 제조에 기여해왔다. 게다가 소재부터 필름까지 전공정

을 국산화하는데도 성공했다. 아이티캠은 현재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에 대해 국내·외 대기업과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 파일럿 테스트 및 양산 테스트를 통과해 일부 고객사로부터 최종 제품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본 대기업에도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울산 울주에 있는 부국산업은 미래차로 꼽히는 친환경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 개발·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수소연료 전지차 구성품 중 가장 핵심은 ▲연료전지스택 ▲전장 부품 ▲수소 저장 및 이송 부품이다. 이 가운데 부국산업은 수소이송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다. 무게도 가격이 비싸고 가공이 쉽지 않은 기존 스테인리스 소재의 단점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수소이송 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부품 중량을 줄이고, 연비 개선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가격까지 낮춰 수소차의 대중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기술개발 → 사업화 → 공정혁신 최대 182억 지원 '5년 프로젝트'

부국산업의 수소이송 부품은 수소연료 전지차를 본격 생산하는 2021년께 양산돼 2018년 기준 1077억원이던 매출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년 설립 후 초정밀 가공기술과 에어베어링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에어 베어링 시편들 양산에 성공한 알피에스. 에어베어링 시편들은 반도체, PCB, 터치패널, 스마트폰의 메탈케이스 가공 등 첨단산업분야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약 70%에 이를 정도로 국산의 접근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알피에스가 개발한 스마트폰 정

밀 부품 가공용 10만rpm급 에어 베어링 시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초의 강화유리 전용 가공기용 에어 베어링 시편들도 개발해 현재 스마트폰 및 디스플레이 장치의 커버글라스 등 엠티그라 인더용으로 사용하며 우수한 품질도 인정받고 있다.

상시 모니터링, 사후관리 철저 수요 대기업과 공동 성장 지원

◆어떤 지원 이뤄지나 정부는 이들 '소·부·장 강소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업 1곳당 총 30개 사업에 걸쳐 5년간 최대 182억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기술개발단계, 사업화단계, 공정혁신단계 등 모든 단계에 걸쳐 ▲R&D 사업 우선 지원 최대 20억원 ▲IP분석, 시제품 테스트 등 최대 2억원 ▲중진공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수출바우처·수출국 규격인증 획득 최대 1억원 ▲스마트 공장 고도화 최대 1억5000만원 ▲로봇 생산 공정 도입 최대 3억원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선정된 강소기업들이 신속하게 기술혁신을 하고 사업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R&D, 벤처투자, 사업화 자금, 연구인력, 수출, 마케팅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아울러 수요 대기업과 분업적 상생협력을 통해 수요·공급 기업간 공동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이들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 매년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평가가 미흡하거나 요건 결격, 부도나 폐업 등으로 프로젝트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강소기업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2019년 선정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55개사 현황

분야	기업명	주요 기술/제품
기계금속	다윈프릭션	항공기 휠, 브레이크
	대성하이텍	스마트 팩토리 IoT 플랫폼을 적용한 임플란트 가공 CNC복합 자동선반 개발
	삼영기계	피스톤, 리스톤 링, 실린더 헤드
	알피에스	에어베어링 시편들
	일신오트클레이브	고체전지 소재·부품 제작을 위한 장비
	파나시아	수소 추출기 핵심기술 개발
기초화학	플로트론	코리올리 질량 유량계, 온압보정형 Vortex 유량계
	한국도기계	선박 BVRC용 전기유압식 액추에이터 국산화 개발
	아이티캠	투명폴리이미드 필름용 모노머
	에나젠	펩타이드 바이오소재 및 혁신 신약기술 개발
디스플레이	에버텍	고기능성 대전방지 코팅제
	에프티씨코리아	산업용 촉매제, 첨가제, 타이어코드 접착수지 제조기술
	엔켄	리튬이차전지용 전해액
	한국바이오젠	전자재료용 실리콘 O-레진 6층 핵심소재 및 다운스트림 개발
	베이스	OLED 실링용 Glass Frit & Paste 제조기술
반도체	선재하이테크	산업용 정전기제거 장비
	에스엔에스텍	고해상도 평판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고품위 블랭크마크 개발
	에스엠에스	차세대 Display용 융복합 고기능성 코팅제 개발 및 사업화
	엔텍	초소형 마이크로 LED칩 미세 접합공정 기술 등
	이코니	Ultra Thin Glass개발
	코윈디에스티	LCD/OLED 레이저 리미어 기술
	풍원정밀	OLED 증착용 Fine Metal Mask(FMM) 사업화
	넥스틴	초고속 고감도 암조명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개발
	디엔에프	반도체용 ALD 전구체 개발
	마이크로프랜드	5G Application 向 3D MEMS Test Solution
자동차	에이엠티	차세대(DDR5) Memory Module 고정밀 Tri Temp Test 검사 장비개발
	에이티아이	반도체 광학 검사 및 계속 장비
	엘에이티플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무화염 촉매방식 가스스크러버
	영창케미칼	KfF포토레지스트
	웨이비스	GaN RF 반도체 칩 제조 기술
	윌테크놀로지	DDIC 다중 COF 패키지 등
전기전자	파르시스시스템	반도체공정과 OLED 공정용 In-line Hybrid AFM 기반 Inspection tool 개발
	게임금속	2세대 DCT 부품 제조
	대양전기공업	자동차 주행안전제어용 압력센서
	부국산업	친환경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 개발
	서우산업	PET Wheel Guard/ PET Floor Under Cover
	성림첨단산업	히트류 영구자석 등 소재
	센시텍	초음파 센서 모듈
	아오그린텍	나노기술 기반 첨단 소재 및 부품 개발
	가기비스	AOI (초고해상도 반도체 패키징용 RDL회로패턴의 광학검사 기술) 등
	대우전자재료	리튬이차전지용 실리콘복합산화물 음극활물질
기타	동우전기	DMS, 초고압 VT
	비나텍	슈퍼커패시터 제조 기술 연료전지 지지체, 촉매, MEA 제조기술
	비츠로셀	IoT, Smart-Grid, Smart-Weapon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 통신장비 전원솔루션 개발
	세미시스코	인쇄전자 방식을 적용한 유연기판용 Cu기반 투명전극 소재 및 공정 국산화
	썬크	산업용, 의료용 X-ray Tube 인공지능 기반 AXI검사장비
	알레오오트메이션	네트워크 기반 다기능 로봇모션 제어 솔루션 개발
	엘케이엠엔텍	반도체 금벌프용 도금액소재
	오이솔루션	통신용 반도체 레이저 부품 사업화
	와이엔텍	친환경 전기, 수소차용 직류 고전압 릴레이
	이노피아테크	초소형 무선 방송수신장비
인텔리온테크놀로지스	위성통신 안테나 시스템용 트랜시버 개발	
캠을릭스	모바일 5G용 팜프가변 광 트랜시버	
피엔이솔루션	2차전지 화성 라인 용·복합 시스템 개발	
한라아이엠에스	가스연료추진선박의 탱크 및 밸브 통합감시제어 핵심장치 및 플랫폼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세계로 뻗는 소부장... '메이드 인 코리아' 총력

반도체 등 6대분야 100개 품목 맞춤형 대책 이르면 이달 발표 신보·기보 1兆 보증프로그램도

수출 규제, 백색국가 배제 등 일본의 공습에 논란 우리 정부가 꺼내든 것은 완벽한 '경제 안보'와 '기술 독립'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주력산업의 뿌리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1등 제품'만 살아남는 독과점 구조여서 관련 분야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맨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소·부·장의 경우 일본, 독일 등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 이어서 더욱 그렇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꺼내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또 12월 중순 내놓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의 100개

핵심전략품목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빠르면 이달 중 내용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수입선 다변화,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등도 함께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 2조1000억원 등 매년 2조원 이상의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통해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7500억원), 기술보증기금(2500억원)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소부장 중소

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 만기연장, 신규 보증비율 상향 등을 지원한다.

핵심기술을 개발한 공급기업과 이들 기술을 활용하는 수요기업간 협력사업도 올해 20개 이상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자금, 입지, 규제 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세금 혜택과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한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부·장 기술을 추가하면서다.

R&D 법인세 공제율의 경우 대·중견 기업은 기존 20%에서 최대 10% 추가, 중소기업은 30%에서 최대 10% 추가해 혜택을 각각 늘리기로 했다.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각각 적용한다. 소부장 기업이 외국회사를 인수·합병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공동인수시 기존엔 각 기업 별로 적격요건을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해 요건을 판단, 공동인수시에도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기존엔 주식취득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사업이나 자산을 인수하는 것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R&D에 생산·판매까지 주도 제약·바이오 주권 찾기 '시동'

신약개발의 세대교체

SK그룹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프리' 상표로 美 전역에 판매

한미약품 필두 신약개발 성과 가시화
국내 제약사 이름 단 글로벌 신약 기대

신약주권을 향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다. 올해 SK바이오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혁신신약이 미국 시판 승인을 받으며 토종 블록버스터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물론 제품의 생산과 판매까지 국내 기업이 직접 주도할 수 있는 신약개발의 세대 교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다.

제약·바이오업계는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개발의 노력이 오는 2025년 되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1조원 이상 판매되는 토종 신약을 만날 날이 머지않은 셈이다.

◆신약개발, 우리가 주도한다

신약주권을 향한 SK그룹의 26년 노력은 결국 지난해 첫 결실을 맺었다. SK바이오팜은 지난해 11월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중도 기술 수출 없이 혁신 신약으로 신약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판매 허가 신청(NDA)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한 국내 첫 신약이다. 이 신약은 내년 2분기 '엑스코프리'라는 상표를 달고 미국 시장 전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세노바메이트의 시판 승인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역사에 많은 의미를 갖는다. 중도 기술수출 없이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판매 허가까지 직접 이뤄



SK바이오팜 조정우 사장이 지난 11월26일 엑스코프리의 미국 FDA 승인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냈다는 것은 물론, 의약품 생산과 판매까지 모두 SK그룹이 직접 맡기 때문이다. 원료의약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직접 생산체제를 갖췄다.

SK바이오팜의 자회사였던 CDMO 업체 SK바이오텍은 지난 2017년 BMS의 아일랜드 공장 설비를 인수한데 이어, 2018년에는 미국 회사인 AMPAC을 인수했다. AMPAC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항암제와 중추신경계, 심혈관 치료제 등에 쓰이는 원료의약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유럽과 미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SK바이오텍은 내년까지 의약품 생산 규모를 160만 리터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기존 업계 1위 생산 규모를 가졌던 스위스 지그프리트 캐파가 155만 리터임을 감안하면 SK는 내년 업계 1위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판매와 마케팅도 직접 맡는다.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판로를 개척하던 다른 제약사들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SK바이오팜의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는 이미 3년 전, 엑스코프리의 임상 3상 단계부터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고, 현지 의약품 유통 채널을 확보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왼쪽 두번째 부터)이 지난 해 12월 인천시 등과 바이오산업 원부자재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해 왔다.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이사는 "현지 기업과 코마케팅을 하면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이익을 반으로 나눠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이미 미국 전역의 의약품 유통 채널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판매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주요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역시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해 손을 잡고, 해외 직판체제를 구축하는 등 주권 확보에 나섰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은 지난 달 인천시와 손잡고 바이오산업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해 글로벌시장에서 의약품의 직접 판매 유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하고, 현재 직판체제를 전세계로 확장해 가는 추세다.

◆2025년 토종 블록버스터 기대

제약·바이오업계는 한미약품 필두로 그동안 토종 신약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성과가 올해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신약개발의 역사는 지난 1999년 SK케미칼이 항암제 '선플라

주'를 처음 개발한 이후 쌓여온 20년이 자랑분이 됐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신약개발 1세대로 불리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의 최고 결정권자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2020년 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술수출 30년, 신약 개발 20년이 되는 올해는 지나온 경험이 축적되면서 결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다국적 제약사와의 협업이나 기술이전 없이 국내 주요 제약사들과 국내 바이오벤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신약을 제품화 하고, 해외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기는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내 제약사 이름을 단 글로벌 블록버스터도 탄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약주권만을 고집할 것일 아니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단계별 전략을 세워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주도하는 신약개발이 추구해야하는 방향인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십수년의 기간과 수조원이 투입되는 신약개발과

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글로벌 마케팅 까지 모두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제약사 가운데 글로벌 50대 기업에 포함되는 빅파마는 없는 실정이다.

정 대표는 "전 세계 판매망을 갖추는 것은 글로벌 20~30위권에 들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우선 전략적 제휴와 협업, 기술수출 등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매출 3조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50대 기업으로 진입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전방위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신약주권도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일본 제약기업들은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하기 까지 꾸준한 기술수출을 통해 확실한 수익원을 확보하고, 직판에 나서기 까지 단계별로 현지화 과정을 거쳐왔다"며 "암젠이나 로슈와 같은 다국적 기업 역시 꾸준한 라이선스 아웃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은 주권을 내세우기보다 전략적 협업에 나서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세경 기자 seille@metroseoul.co.kr

동국제약, 건강식품 브랜드 '동영제' 론칭

소비자 건강에 맞는 기능식품 구성

동국제약 헬스케어사업부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동영제(동국제약 영양제작소)'를 신규 론칭한다.

동영제는 고품질의 프리미엄 원료들을 엄선해 한국 소비자 건강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피로개선 멀티비타민, 피부건강 항산화 멀티비타민, 기억력 개선 멀티비타민 등이 있다.

동국제약 헬스케어사업부 관계자는 "높은 품질의 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을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라며 "마데카크림으로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처럼, '동영제'도 인지도와 점유율을 높여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 대표 브랜드로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영제 건강기능식품

다. 동국제약 헬스케어사업부 제품들은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 등에 입점해 있는 48개 '동영제 매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매장에서는 다이어트 및 면역력 강화를 위한 제품과 보스웰리아, 리프리놀 등을 원료로 사용한 관절건강제품, 크릴오일1000 등 다양한 제품도 구매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 '나보타' 中서 임상3상 착수

(보톨리눔독신)

2022년에 中 시장 출시 목표
환자 500명 대상 안전성 입증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보톨리눔독신 제제 '나보타'가 중국 임상에 본격 착수한다.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한 보톨리눔독신 제제 '나보타'의 중국 임상시험에 돌입해 28일 중국 상해 풀만 스카이웨이 호텔에서 임상 연구자 회의를 진행했다. 대웅제약은 2022년 중국 시장에 '나보타'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임상3상 시험을 진행한다.

이번 임상연구자 회의는 중국 임상 총괄 책임자인 이청봉 상해교통대학부속병원 제9병원 교수 등 임상 연구진과 병원 관계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해 중국 임상 3상 진행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이외에도 나보타 제품 및 임상시험 경험 소개, 최원우 웰스피부과 원장의 미간 주름 평가 및 시술법 등 제품과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임상시험 착수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진행됐다.

대웅제약은 중등증에서 중증까지의 미간주름 개선을 적응증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에 임상시험을 통해 중등증에서 중증의 미간주름이 있는 환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16주간 대조약과 효과를 비교해 비열등성과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한다. 임상시험은 중국 내 성형 분야로 유명한 상해교통대학부속병원 제9병원을 포함한 12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이 교수는 "2020년은 메디컬 뷰티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많은 이들이 새로운 제품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회의는 임상시험의 시작을 의미하며, 나보타가 중국에서 성공한 수입 보톨리눔독신 제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웅제약 박성수 나보타사업본부장은 "중국은 대상 환자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면 시장 침투율이 2%대로 낮고, 정식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 2개밖에 없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가장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나보타와 같은 고품질이면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이 공식허가를 받아 시장에 공급되면 중국의 잠재 환자들도 더 쉽고 안전하게 보톨리눔독신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K푸드, 지구촌 누빈다... 美에 현지공장, 만두 매출2兆

〈농심〉

〈CJ제일제당 2023년까지〉

세계로 나가는 국내 식품기업

CJ제일제당 美 넘어 유럽까지 진출
오리온 해외사업강화 위한 조직개편
농심 美 제2공장 설립... 도약 선언
아워홈 中·베트남 급식 사업장 확대
삼양식품 라면 年 생산량 12억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른 방탄소년단(BTS) 열풍 못지 않다. 현재 세계적인 식품 트렌드는 식물성 기반 식품, 발효음식, 매운 맛, 에스닉 푸드로 요약된다. K푸드는 이같은 글로벌 식품 트렌드를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튜브에는 K푸드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고, 조회수도 폭발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주요 식품품목의 무역수지는 3억5493만달러(약 4179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농수산물 수출액 역시 지난 2015년 80억 2836만달러(약 9조원)에서 2018년에는 93억26만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 이에 국내 식품업체들은 해외사업 투자에 힘쓰고 있다.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은 '비비고'를 중심으로 동남아, 미국, 유럽까지 사업을 확대해 'K푸드'와 라이프스타일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비비고 만두'를 앞세워 2023년까지 국내의 만두 매출을 2조6000억원으로 올리고 이 중 글로벌 매출만 2조원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은 서부지역에 신규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영향력을 확대한다. 2018년 인수한 슈완스 컴퍼니와 카히키까지 가세해 북미 시장 확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등 인근 국가로의 시장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만 2021년 매출 1조원을 돌파하고 2023년에는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에서는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식재료를 활용한 '비비고 왕교자' 현지화 제품 개발에 집중한다.

기존 고기와 채소 등 중심으로 만두소를 차별화한 데 이어 새우 등 해산물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다. 베트남 시장의 경우 '비비고 만두'를 앞세운 한식 만두와 현지식 만두로 투트랙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비비고 만두'를 OEM 생산·판매하는 일본 시장도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비비고 QSR' 매장

/CJ제일제당



농심 미국LA공장

/농심

유럽시장에서도 독일과 러시아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주요 식품 매장(델리, 레스토랑 등)에서 '비비고 만두'를 취식할 수 있도록 B2B 사업도 강화한다.

오리온

오리온은 2020년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R&D와 해외사업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오리온은 연구소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해외법인 주요 임원들을 발탁 승진시켰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인사에서 한국 법인 연구소장인 이승준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신설된 글로벌 연구소장으로 선임했다. 베트남 법인은 김재진 연구소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전무로 승진시켰다. 러시아 법인에서는 생산부장 박종욱 상무를, 오리온 제주용암수에서는 운영총괄 허철호 상무를 각 법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중국 법인에서는 오리온이 1993년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인 공장장이 배출됐다.

오리온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팀제를 도입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한국 법인의 경우 기존 16부문 60팀에서 4부문 17팀으로 개편하고, 효율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지원본부를 신설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법인도 2~4개 본부 체제로 개편했다.

농심

농심이 미국에 제2공장을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에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신공장 부지는 캘리포니아주 LA 인근 코로나로, 올해 공사를 시작해 기존 공장의 3배 규모인 약 15만4000㎡(약 4만 6500평) 부지 내에 지어질 계획이다.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금액은 총 2억 달러로 농심 창립 이래 최대 규모다.

농심은 미주지역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더욱 다양해지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 설립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

농심이 양적, 질적 팽창을 하기 위해 새로운 심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농심은 미주지역에서 최근 수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농심 기존 공장과 달리 제2공장에 건면과 생면 생산능력을 갖추고, 건강과 프리미엄 가치를 앞세운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농심이 해외에 건면과 생면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2공장 부지로 낙점한 코로나는 현재 공장인 캘리포니아 랜초 쿠파몽가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4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기존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은 생산에 필요한 각종 원료의 수급과 물류비용의 효율성, 두 공장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한, 서부가 멕시코 등 남미지역 공

급에 지리적으로 유리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농심 미국 제2공장은 2021년 말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심은 공장가동이 본격화되면, 2025년까지 미주지역에서 현재의 2배가 넘는 6억달러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아워홈

아워홈이 올해 중국 단체 급식 사업장을 37개에서 47개로 확대하고, 베트남은 14개에서 24개로 확장하겠다는 경영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체된 국내 급식시장보다 해외 급식시장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호텔과 기내식 사업 등을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에 포함 시켰다.

아워홈은 2010년 중국 단체급식 시장에 진출하며 현재 베이징, 난징, 광저우, 톈진, 옌타이 등 10개 도시에서 약 50개의 위탁 및 오피스 급식업장을 운영 중이다. 2020년에는 급식 사업장을 37개에서 47개로 확장해 매출을 20% 늘리겠다는 사업 계획을 세웠다.

2017년 4월 진출한 베트남에서는 현재 14개의 급식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24개로 늘리면 매출이 10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워홈 측은 중국 및 베트남 급식사업 등을 통해 2020년 매출 2조5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

삼양식품은 오는 2023년까지 약 1300억원을 투자해 경남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6만6115㎡(약 2만 평)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 이를 위해 삼양식품은 지난달 9일 경상남도, 밀양시, 한국주택토지공사와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삼양식품은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유통망 강화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그동안 생산 능력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컨테이너 800대(라면 약 6400만개)를 수출하는 등 매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현재 가동중인 원주와 익산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12억개 수준이며, 수출용 제품 대부분은 원주공장에서 생산된다. 밀양은 부산항과 인접해 물류비가 기존 대비 50% 절감되는 등 수출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

삼양식품은 이 같은 이점을 활용해 신공장의 생산 품목을 수출용 제품으로 구성하고, 생산라인을 자동화함으로써 해외 수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오리온 제품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GMT
1547.1135

“풍요의 상징 쥐가 나타났다”

‘경자년은 나의 해’... 쥐띠 CEO가 달리쥐!



산업계

허창수·박찬구 48년생 최고 연장자

쥐띠는 동양 철학에서 부지런하고 신중하면서도 재치 있고 민첩한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모두 갖춘 셈이다. 그래서인지 산업계에는 쥐띠 CEO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 여러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2020년 국내 경제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가장 연장자는 GS그룹 허창수 명예회장이자이다. 2004년 GS그룹 회장을 맡아 리테일과 건설 등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공헌했다. F C서울(전 LG치타스) 구단주로도 15년여간 활약하며 프로축구를 발전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허 회장은 지난해 은퇴를 선언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는 2021년 2월까지 임기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시작해 역대 최장인 10년을 채우게 된 셈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1948년생 현역 CEO다. 금호석화가 금호그룹에 속해있던 2006년부터 10여년간 사실상 회사를 이끌어왔다. 경영난에 빠진 금호그룹과는 달리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효성 김규영 사장도 여전히 활약하는



허창수 GS 명예회장



최태원 SK 회장



박찬구 금호석화그룹 회장

1948년생 CEO다. 1972년 효성의 전신 동양나이론에 입사해 비오너로 최고 경영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최근에는 ‘제33회 섬유の日’에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재계 만형’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1960년생으로 대표적인 쥐띠 CEO다. 1998년 38살에 회장에 올라 20여년간 대부분을 그룹 총수로 보냈다.

최 회장은 ‘딥 체인지’를 기조로 SK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SK텔레콤을 국내 최고 통신사로 키워냈으며, SK하이닉스에 이어 SK실트론과 SK머티리얼즈 등을 인수하며 반도체 산업 ‘수직 계열화’에도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이 뒤늦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었으면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된 데에도 최 회장 지원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최근에는 SK바이오팜이 뇌전증 발작 치료제 ‘엑스코프리’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며 미래 먹거

리까지 확보한 상태다.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면서 재계에 모범을 보이는 데에도 바쁘다. 일찌감치 경제와 사회 기여를 동시에 추구하는 ‘더블 보텀 라인’을 앞세워 사회적 가치 측정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에 적용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그룹에는 특히 1960년생 쥐띠 CEO가 여럿 포진해있다. 그 중에서도 올해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정은승 사장이 가장 주목받을 CEO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파운드리 사업 성공 여부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도 내홍 속에서 위기 관리 능력을 검증받게 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에는 현대차 이원희 사장이 1960년생 쥐띠 CEO다. 1984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미국판매법인과 재정본부장 등을 거친 재무 전문가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이재현 CJ 회장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유통업계

60년생 이재현, 72년생 정유경 등

경자년(庚子年)에는 힘센 지도자가 출현한다는 말이 있다. 유통과 식음료 업계 ‘쥐띠’ 최고경영자(CEO) 활약상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경영 악화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CJ 이재현 회장은 1960년생 대표주자 쥐띠 CEO다. 이 회장은 지난해 인적 쇠퇴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최근 사업 확장으로 인한 재무 급증 등 악화된 경영상황을 타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애경그룹을 이끄는 채형석 총괄부회장도 쥐띠다. 채 부회장은 애경그룹 주력 사업을 생활용품에서 화학, 유통, 항공 등으로 넓히는 데 힘써왔다. 주력 계열사 제주항공을 안정 궤도에 올려놓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 채 부회장 주도 아래 AK홀딩스 등 계열사들이 수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 넘는 자금을 수혈했다. 최근 이스타항공을 품에 안으며 LCC 시장 독보적인 1위에 올라섰다.

김형중 현대백화점 대표도 눈길을 끄는 인물이다. 그는 브랜드 효율화를 통해 5000억원에 못 미쳤던 한섬 매출을 6년 만인 2018년 1조3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현대백화점 수장에 오른 그는 올해 신규 점포 출점을 철저히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과 남양주점을 개점한다.

장재영 신세계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도 대표적인 쥐띠 CEO다. 장대표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이 기존에 전개하고 있던 사업의 내실을 더욱 탄탄히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입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를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1본부(패션라이프스타일 부문) 대표도 겸임하며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1972년생 쥐띠 CEO로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등이 꼽힌다.

조선호텔을 ‘명품호텔’로 업그레이드 시킨 정유경 총괄사장은 지난 2009년 신세계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긴 후 매장 디자인 구성과 신세계인터내셔널의 패션·화장품 사업을 주도했다.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뒤 그룹 백화점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왔다.

정지선 회장은 지난해 서울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추가로 획득해 1년 만에 강남에 이어 강북으로 영토 확장에 성공했다. 두 CEO는 올해 인천국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 결과를 두고 한 번 더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식품업계에도 환갑을 맞는 CEO가 포진해 있다.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는 올해 경영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그는 롯데푸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롯데푸드는 HMR 제품군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김천 육가공 공장을 HMR 생산 전담 기지로 바꾸는 설비투자를 진행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금융업계

이대훈·나재철 60년생 동갑내기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 쥐의 해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3저’ 상황에서 올해 금융업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위기를 돌파구로 만들고 새로운 먹거리를 개척할 쥐띠 최고경영자(CEO)의 활약이 기대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쥐띠 CEO(1960년생)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다. 지난해 이 행장은 NH농협금융지주 출범 이후 주요 계열사 수장으로선 최초로 3연임에 성공했다.

이 행장은 농협은행의 지난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한 1조1922억원을 올리는 등 역대 최대의 실적을 이룬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올해 활약도 주목된다.

다만 올해 경영환경은 지난해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초저금리에 정부 규제로 은행업의 수익성 둔화가 예상된다. 이 행장은 올해 경영전략으로 고객 중심의 디지털 강화, 자산건전성 확대 등을 제시하며 위기 극복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신한, 삼성, 현대카드 등 업계 선두주자의 수장이 모두 1960년생 동갑내기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최근 3연임에 성공한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규제에도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대비 3.9% 증가한 4111억원을 기록하는 등 카드사 1위의 위상을 보여준 바 있다.

임 사장은 “신한금융그룹이 지향하는 일류 신한과 원 신한(One Shinhan) 정신을 바탕으로 지불 결제 리더십 강화, 멀티파이낸스 가속화, 플랫폼 비즈니스 가치 창출, 핵심역량 진화 등의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업무 전반에 디자인 경영을 도입하고 ‘슈퍼콘서트’ 등 창의적인 발상을 기반으로 한 문화마케팅으로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8년간 삼성카드가 독점한 대형할인점 코스트코와의 새 파트너십을 이끄는 등 올해에도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이라 전망된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2014년 1월

취임한 뒤 6년째 삼성카드를 이끌고 있다. 원 사장은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2.8% 증가한 2827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보험업계에서는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과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이 1960년 쥐띠다. 생명보험업계는 올해 저금리에 따른 실적 하락,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 등 여러모로 여건이 좋지 않다.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은 “최고 수준의 상품, 판매 채널 경쟁력, 미래성장 동력 확보로 고객에게 믿음과 행복을 주는 넘버원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1960년생이다. 나 회장은 대신증권서만 35년 동안 근무한 ‘정통 증권맨’이다. 그는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금융투자협회에 당선포 2일 취임한다. /김희주 기자 hj9@

접는 폰 대중화... 집에서 피부관리... 걸으며 건강체크

주목받는 IT기기를

‘갤럭시 폴드’ 1차 예약 판매서 완판
폴더블폰, 올해 320만대 출하 예상

스마트워치,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
점유율 1위 애플, 2위 삼성전자 順

2016년 첫 출시한 에어팟 인기 여전
무선이어폰, 프리미엄 기능 더해질 듯

홈뷰 인기 LED마스크 등 출시
전자 업체 뿐 아니라 화장품 업체도



갤럭시 폴드

/삼성전자



LG 프라임 모델 이나영이 ‘LG 프라임 플러스’ 신제품 4종과 초음파 클렌저 등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갤럭시 버즈 3종

/삼성전자



미밴드4

/샤오미

시대가 흐르며 수많은 IT 기기가 등장하고 사라진다. 과거 유행했던 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PM P 등이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다 가능해진 것을 생각하면 쉽다.

이제는 평평한 스마트폰 디자인을 넘어 화면을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더블 폰이 등장했고, 이어폰을 사용할 때마다 영킨 선을 풀던 유선 이어폰 사용자들은 무선이어폰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또한 아날로그 시계 대신 스마트폰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워치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집에서 뷰티 기기를 통해 피부관리를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2020년 주목받을 IT 기기를 선정해봤다.

◆화면 접는 시대, ‘폴더블 폰’

2019년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가 등장했다. 239만8000원이라는 가격과 초기 제품이라는 부담감에도 갤럭시 폴드는 국내에서 진행된 1차 예약 판매에서 10여 분 만에 모두 판매됐다.

이후 3차례의 예약판매까지 모두 완판을 기록했다. 획일적인 바(bar) 형태의 스마트폰에 갈등을 느낀 소비자가 화면을 접는다는 새로운 폼팩터에 매력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더욱 저렴한 폴더블 폰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년에는 갤럭시 폴드와 화웨이의 ‘메이트 X’가 전부였지만 올해에는 다

른 업체들의 폴더블 폰 출시도 기대해볼 만하다. 당장 모토로라가 미국에서 100만원대의 폴더블 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TCL,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업체가 올해 폴더블 폰을 선보인다.

폴더블 폰 시장의 성장도 기대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폴더블 폰의 출하량은 40만대 수준이지만 올해에는 이보다 8배나 커진 320만대, 2021년에는 1080만대, 2022년에는 2740만대, 2023년에는 3680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손목 위 주치의, ‘스마트워치’

“오늘 목표를 달성하려면 600 걸음만 더 걸으시면 됩니다.” “잠시 일을 멈추고 심호흡하세요.”

요즘 나오는 스마트워치는 건강관리에 초점을 둔 제품이 많다. 팔목에 착용

하는 탓에 수시로 걸음수와 심박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스마트폰을 들지 않고서도 메시지와 전화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건강에도 신경 쓸 수 있어 스마트워치를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대의 스마트워치가 많아 제품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샤오미가 국내 시장에 출시한 ‘미밴드4’는 3만1900원의 가격에 메시지, 전화 확인은 물론 심박수 측정과 수면 관리까지 가능해 1차 예약판매에서 4시간 만에 초도물량 1만대가 완판되기도 했다.

스마트워치 시장의 절대강자는 애플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전 세계 스마트워치 점유율 1위는 애플로 47.9%를 차지했고, 삼성전자가 13.4%로 뒤를 따랐다. 3위는 11.3%를 차지한

핏빗이다.

국내 업체 중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꾸준히 스마트워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구글이 스마트워치 업체 핏빗을 인수하며 스마트워치 사업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올해에는 애플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무선이어폰이 대세

이제는 무선이어폰이 일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선이 없는 무선 이어폰을 낀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띈다. 그중 2016년 처음 출시된 애플의 에어팟은 여전히 인기다.

애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조차 에어팟을 찾기도 한다. 애플은 지난해 2세대 제품을 출시했다. 30만원대의 가격에도 찾는 사람이 많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버즈’를 통해 시장을 늘려가고 있다. 갤럭시 버즈 출시 가격은 15만9500원이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도 많아지고 있다. 스카이가 작년 1월 출시한 3만원대의 ‘스카이 핏 프로’도 누적판매량 10만대를 돌파한 이후 최근 신제품 ‘스카이 핏 엑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샤오미와 QCY 제품에 대한 수요도 많다.

향후에는 주변 소음을 없애주는 ‘노이즈 캔슬링’ 등 프리미엄 기능들이 무선이어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피부관리하는 시대, 피부 미용 기기

집에서 전문 의료기기 못지않은 기기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홈뷰티 시대가 되면서 여러 업체들이 LED 마스크를 비롯한 각종 뷰티 기기를 출시하고 있다. 클렌징부터 LED를 통한 피부관리까지 가능한 게 특징이다. LG전자의 프라임을 비롯해 셀리탄, 보미라이 등이 LED 마스크를 선보였다.

LG전자가 지난해 7월 출시한 프라임 플러스의 경우 ▲더마 LED 마스크 119만9000원 ▲토털 리프트업 케어 59만9000원 ▲갈바닉 이온 부스터 44만9000원 ▲듀얼 브러시 클렌저 34만9000원 등으로 4종을 모두 사면 259만6000원이다.

뷰티기기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자업체뿐 아니라 화장품 업체도 관련 제품을 내놓는 등 향후 다양한 뷰티 기기가 등장할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경제단체장 “넓은 규제 버리고 기업 살려야” 한목소리

불확실성 확대에 경제 위기 강조
박용만 “구조 개혁자체가 더더”
허창수 “새로운 방식으로 새틀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새해에 위기 극복, 사회적 가치 제고, 미래 지속 성장 기반 구축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단체장들은 2020년을 맞는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 침체에 빠진 민간 부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구조 개혁 자체가 더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기존 산업 보호 때문에 새로 산업 변화를 일으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고착됐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용 등 거시경제 숫자 관리는 잘했지만, 정부 기여율(75%)이 높아져 민간 기여율(25%)이 굉장히 줄었다. 그만큼 민간 기업의 체감 경기가 나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이 “숫자는 좋은데 왜 내 사업은 나쁘냐”고 반문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외 여건이 나빠 단기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구조 개혁 자체가 더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이라며 “기존 산업 보호 때문에 새로 산업 변화를 일으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고착됐다. 사업 기회가 없는데 의지만으로 투자가 되느냐”고 반

문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며 “넓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남다른 아이디어로 과감히 도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선제적인 연구와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며 “사회 전반에 기업을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우리경제는 새 시대를 맞아 다시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며 “정책기조가 ‘기업 활력 제고’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 법인세율·상속세 인하 ▲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 ▲ 성과주의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 ▲ 근로조건 결정 개별·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고령화·저성장·저소비가 ‘새로운 일반’(뉴노멀)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세계 무역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제

우리 수출은 기존 성장모델만으로는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없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물량에서 품질·부가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눈앞의 기회와 단기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혁신한다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기는 재도약의 새로운 기회”라며 “새해에 중소기업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면서 ▲ 최저임금 결정기준 차등화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법) 등 환경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제대로 된 기업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기업인은 상생·협업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기업이 정신을 강조했다. 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새해에는 정치가 바로 서야”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국회는 민생경제와 남북관계,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백척간두에 서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해 첫날을 시작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1일 “국민의 지력과 힘을 한데 모아 승화시키는 일은 정치의 책무”라면서도 “한국 정치는 제자리 걸음만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며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열망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밝혔다.

그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지난해를 언급하며 “국회 역시 임시의정원 개

원 100주년을 기억하며 신뢰 받는 국회를 다짐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정치 는 실망을 안겼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이라고 했다.

이어 “위대한 우리 국민의 지력은 전환기마다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이뤄냈다”며 “2017년 광장의 촛불은 지쳐 가던 한국사회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끝으로 “경자년 쥐띠의 해에는 희망과 풍요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며 “새해에는 국민통합의 힘을 모아,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성장 전환점… 제2벤처붐 조성”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올 한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벤처기업인들에게 “우리 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앞세워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돼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건준 회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벤처업계는 정부의 ‘제2벤처붐 확산전략’ 발표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의 대두, 주52시간 제 시행을 앞둔 노사 간 갈등 고조, 각종 신산업과 기존 전통산업 간의 충돌 등 숱한 난관을 경험했다”고 했다.

안 회장은 이어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촉진법,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지난 2019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안건준 회장은 “하지만,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국내 유니콘 기업은 11개로 증가해 세계 유니콘 기업 순위에서 독일과 같이 5위에 올랐고, 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기업은 587개사로 작년 발표보다 15개사가 증가했으며, 매출 1조원 벤처는 11개사에 달하고, 벤처투자액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성과를 보여줬다”며 “벤처·창업생태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

와 성과를 대내외에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안건준 회장은 “전 세계는 지금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해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신산업 혁신 창업과 스케일업 강화를 통한 ‘4대 벤처강국’을 구현하겠다는 견인 정책을 발표하고 혁신성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벤처기업협회도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신산업분야의 선제적 규제개선을 추구하고, 4차 산업혁명분야 기술혁신과 우수한 인재의 벤처 유입을 촉진하며, 혁신자본의 질적 성장과 선순환 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건준 회장은 “새해에도 지금까지 이뤄 온 성과를 바탕으로 ‘제2벤처 붐’과 ‘선순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협회도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으로 국내 벤처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건준 회장은 지난 2019년 2월 제9대에 이어 제10대 벤처기업협회 제10대 회장을 연임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부동산 국민공유 선언… “청년에 월세 20만원”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서울부터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시장은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 도입을 제안한다”며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에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기금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도 사용된다.

박 시장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며 “이제 땅이 아니라 땅이 준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제도 개혁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지원센터’를 구축,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불평등엔 이자가 붙는다”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

장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박 시장은 “출발부터 가난하게 자란 소년은 가난한 청년이 되고 가난한 청년이 되고 더 가난한 노년이 된다”며 “일상이 된 소득불균형과 자산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4만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부부 합산소득 1억원 미만으로 완화해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이들 모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8년간 매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왔다. 2년 후 시는 서울 전체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40만호 가량의 공공 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박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을 포함한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집이 제공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주거의 안정은 가계안정과 소비확대, 투자와 혁신,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시작이자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시대적 과제로 저출생과 고령화를 꼽으며 국가가 육아와 교육, 돌봄을 책임져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독박육아와 각자도생의 시대에 누가 흔쾌히 아이를 낳으려 하겠냐”며 “82년생 김지영의 불행한 운명이 서울에서만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겠다. 여성이 이제 아이와 가족의 돌봄으로부터 해방돼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운명을 개척하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올해 우리동네기움센터를 222개소로 늘리고 난임부부 지원,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한다.

박 시장은 “비록 권한과 재정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늘 그래 왔듯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으로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를 견인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갖춰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화진포 개별 등기 분양!

서울에서 2시간 40분 거리

- 1년 365일 사용 가능
- 오션뷰 선착순 10명
- 법인 사원 휴양소 이용
- 개별 등기 가능

24시간 상담
02) 541-0113

제주 별장 개별 등기 분양

- 1억 천만원
- 선착순 5명

블라벤고원 투어 (1,300m)

라오스 남부휴양지 팍세 5일 129만원

대한항공 전세기, 2020년 2/1, 4일 출발

포함 : 왕복 항공,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그린피, 카트, 캐디

필리핀 바기오 파인우드 9일 149만원

해발 1,500m고원 휴양도시, 평균기온 13-23℃

포함 :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카트, 여행자보험

마닐라따가이파이 5일 109만원~

포함 :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카트, 여행자보험

중국 광저우 3박 4일 109만원~

포함 :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카트, 캐디, 여행자보험

1일 골프 특가

태국	차츄사오	썬라이즈 CC 스카이벨리 CC 카오차눅 CC 롭부리 CC	80,000원 70,000원 85,000원 75,000원
필리핀	클락	파인우드 CC	100,000원
		베버리힐스 CC	100,000원
		뉴아시아 CC	100,000원
		메르세데스 CC	70,000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터내셔널 CC	70,000원
		겐팅아와나 CC	130,000원
		오나 CC	95,000원
		퀸나라 CC	100,000원
		하바드 CC	80,000원
		몬테레즈 CC	90,000원

말레이시아 겐팅아와나 7일 149만원

해발 1,100m 사계절 시원한 고지대

7박 9일 169만원~

포함 :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카트, 캐디, 여행자보험

브루나이 이스트우드 9일 169만원

아시아 100대 코스,

포함 :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카트, 여행자보험

마카오 골프 3박 4일 109만원

비자비 면제 / 간소한 비자 / 5성급 호텔

포함 : 왕복 항공, 여행자보험, 미팅/샌딩, 호텔(2인1실), 조식, 석식, 그린피, 18홀(카트, 캐디, 라커)

치앙라이 7박 9일 199만원

포함 :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여행자보험

치앙마이 5일 119만원 / 파타야 5일 119만원

포함 :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여행자보험

방콕 명문 5일 139만원

포함 :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여행자보험

오키나와 골프 4일 149만원 / 미야자키 4일 109만원

포함 :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카트, 여행자보험

사이판 3박4일 129만원~

포함 : 왕복항공, 숙박(2인1실), 미팅/샌딩, 식사, 면비비자(사전비자), 그린피/캐디피/전동카트, 여행자보험

괌 3박 4일 129만원~

포함 :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여행자보험

하노이 하롱베이 5일 119만원

포함 :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카트, 캐디, 여행자보험

나트랑 3박 5일 129만원~

포함 : 왕복 항공, 숙박, 조식, 그린피, 카트, 캐디, 여행자보험

호치민 3박 5일 139만원~

포함 :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여행자보험

달랏 3박 5일 159만원~

포함 :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카트, 캐디, 여행자보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5일 129만원

자카르타 시내 15분 거리, 로얄 자카르타CC

포함 :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여행자보험

말레이시아 글렌메리 5일 139만원

최고급 골프장과 5성급 호텔 숙박

대만 가오슝 3색 골프 4일 139만원

포함 :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여행자보험

하이난 럭셔리 골프 5일 109만원

포함 : 왕복항공, 숙박(2인1실), 미팅/샌딩, 식사, 면비비자(사전비자), 그린피/캐디피/전동카트, 여행자보험

말레이시아 9일 145만원 (몬테레즈CC)

왕복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카트, 여행자보험

ILtour **골프전문여행사 아이엘투어 02-541-4242**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1 751빌딩 717호 | 카카오톡 상담 가능 : @golfcondo 홈페이지 : http://www.iltour.co.kr | E-mail : golfcondo@naver.com

사우나, 가정에서 즐긴다!

캐나다산 적삼목으로 만든 핀란드 수송용 국내 출시

전원주택, 아파트 거실, 기숙사, 연수원, 마을회관, 헬스클럽, 펜션

SALE

5-6인용 2인용 275만원

원적외선 사우나
캐나다산 적삼목 원적외선효과 자동온도조절 인체공학적인설계

세포재생 및 혈액순환 향상
인체항균작용 및 성인병 치료 효과
체중조절 효과 및 운동부족 해소 효과
영양분해 공급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24시간 상담 가능
리치하우징 문의: 1544-6299

용인 전원 택지 반값!

- ☑ 선착순 3명 3.3㎡ 94만원
- ☑ 상하수도공사, 토목공사완비
- ☑ 즉시건축가능
- ☑ 정남향 16세대 단지, 계획관리지역
- ☑ 강남 1시간, 덕평 IC 7km

24시간 상담 031-282-8851

용인 기흥 타운 하우스

- 30평형 3억 8천 5백만원
- 즉시 입주 가능!

- ☐ 고급 타운하우스
- ☐ 기흥 IC 5분
- ☐ 삼성반도체 5분
- ☐ 롯데 명품 아울렛 5분
- ☐ 이케아 매장 오픈
- ☐ 서울 강남 40분 거리
- ☐ 골드/코리아 CC 입구

선착순 5명

로렌스빌 타운하우스 24시간 상담 031-282-8851

“성장·물가 하회... 통화정책 완화 유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고 주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흐름,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흐름에 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경제 상황 판단지표 확충, 정보기술(IT)기술 활용 등을 통해 경제전망의 정도(精度)를 제고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



하나은행, 새로운 시작 행복 2020 신년 일출행사

KEB하나은행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지성규 은행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100여명의 임직원이 서울 을지로 신사옥 24층에 새롭게 오픈하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일출을 함께 감상하며 새해 소망과 건강을 기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출 감상은 기존 통상적인 산행 일출 행사에서 벗어나 도심 속 빌딩 고층부에 소재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로 그 의미를 더했다.

/하나은행

서기 2020년, 꼭 해야 할 일 ‘투표’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서기 2020년’은 “과연 그날이 올까” 싶을 정도의 상상 속 먼 미래였다. 당시를 돌아보면,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예언해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일부 사이버 종교단체는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하느님의 품으로 가자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마야의 달력’에는 지구가 2012년 멸망한다고 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류가 얼마 뒤 사라질텐데 그보다 한참 뒤인 2020년이 오겠냐는 비판론이 팽배했다.

그래서인지 당시 제작됐던 영화 속 ‘2020년 지구’는 핵전쟁으로 모든 문명이 사라지거나, 로봇들이 인류를 멸망시키고 지구의 새 주인이 되거나, 외계 생명체가 거대 괴물들이 인류를 학살하거나, 그도 아니면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지구의 모든 문명이 사라진다고 묘사됐다.

흥행에 실패했지만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를 비롯해 ‘미션 투 마스’ ‘지.아이. 조’ 등과 KBS의 애니메이션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 등이 2020년

을 배경으로 한 대표적 영화다. 심지어 ‘블레이드러너’나 일본 애니메이션 ‘아키라’는 2019년이 배경이었다.

서기 2020년을 맞은 지금, 일부에서는 과거 상상 속 일이 현실이 된 것들도 있다. 17세기 유럽에서 최초로 지폐를 발행했던 스웨덴은 2023년 ‘현금 없는 사회’를 목표로 첨단 칩을 사회에 통용하기 시작했다. 인체에 작은 칩을 심어 현금대신 각종 결제에서부터 신분 확인, 건물출입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베리칩’이다. 현재 스웨덴 사람들 6000명 가량이 ‘베리칩’을 이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는 인공지능(AI) 경쟁이 뜨겁다. AI는 딥 러닝, 머신 러닝 등의 기법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고 있으며 앞으로 인간이 할 상당수의 일들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보적 형태이긴 하지만 사람이 다니는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기 시작했으며 산업현장과 의료보조 등의 분야에서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나마 2020년을 맞이한 인류가 SF 영화처럼 문명발달의 부작용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게 된 배경에는 기술의 무한질주에 제동을 건 각종 법과 규제 덕분이 아닐까 싶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국회와, ‘복지부동’의 철학을 암묵적으로 공유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큰 역할을 했다. 제20대 국회는 우리나라를 아직도 4년 전 시간으로 붙잡아 놓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국회와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달리지 못하고 도록 기업인들의 발목을 굳건하게 잡고 있다. 한계를 모르는 기술 발달을 막기 위한 이들의 몸부림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그만 두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 시간을 붙들어뒀으면 충분하다.

이제는 시계를 제대로 돌려놓아야 할 때다. 당장, 올해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다. 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지금의 20대 국회가 끝나고 새로운 국민의 대표들이 뽑힌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할 각종 공약과 정책이 쏟아질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20세기를 살고 있는 20대 국회가 21대를 맞아 21세기 마인드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2020년부터는 ‘선진 정치시스템’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을 가져보자. 일단 국회부터 21세기에 걸맞도록 바꾸고, 그 다음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가야 할 ‘서기 2020년’이 되길 바란다.

/산부팀장 yjh@metroseoul.co.kr

김준 총괄사장, 현장 찾아 근무자들에 감사인사

SK이노베이션 새해 첫 행복토크

SK이노베이션이 새해 첫 행복토크를 진행했다.

SK이노베이션은 김준 총괄사장이 경자년 새해 첫 날 SK인천석유화학을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일일이 격려하는 한편 행복토크를 통해 기업경영의 가장 큰 목적인 행복추구를 강조했다 1일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많은 구성원들이 새해 첫 날임에도 근무를 한다. 이날 행복토크에서는 구성원들과 함께 SK이노베이션의 성장전략인 그린밸런스와 구성



1일 SK인천석유화학을 방문한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가운데)이 현장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원 행복추구 모두를 해내자는 다짐도 했다.

특히 김준 총괄사장은 조정실, 출하실, 부두 등 주요 시설 및 근무지 외 단 한명의 구성원이 근무하는 현장까지 찾아가 새해 덕담과 함께 연말·연휴·연초까지 쉬지 않고 안정 조업과 내수·수출제품 공급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직접 감사를 표했다.

이어 그는 오찬을 겸한 새해 첫 행복토크를 통해 “작년 한해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았지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 냈고 정기보수를 통해 역대 최고 경쟁력을 갖춘 파라자일렌 생산기지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인사

- ◆ 동양생명 ◇임원 선임 △상무 이동수 ◇팀장 승진 △정보보호팀장 임현섭 △팀장 전보 △CPC기획팀장 류재용 △경영기획팀장 황문경
- ◆ 현대해상 ◇전무 승진 △기업보험부문장 한재원 △개인영업부문장 김상완 △AM영업부문장 이경식 △CPC전략부문장 이용국 △상무 승진 △장기상품부문장 박성훈 △법인영업부문장 서호수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박재원 △자동차보험부문장 이재열 △다이렉트영업부문장 이운기 △리스크관리부문장 윤민영 △디지털전략부문장 정규완 △자산운용2본부장 전경철 △CISO 김재형
- ◆ 현대C&R ◇상무 선임 △콜센터사업본부장 유중수
- ◆ 현대하이카손해사정 △대표이사 이상재 ◇상무 선임 △콜센터본부장 홍의환 △지방권차량본부장 김경민 ◇임원 전보 △수도권차량본부장 장인수
- ◆ 현대HDS △대표이사 고해룡 ◇상무 선임 △SM본부장 이광용
-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표이사 한성조 ◇상무 선임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경

- ◆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대표이사 오석주 ◇상무 선임 △경영지원본부장 추찬홍 △지방권사본부장 이진완
- ◆ 조선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강훈 ◇편집국 △사회부장(부국장대우) 조중식 △국제부장 최원규 △사회정책부장 이진석 △교육전문기자 안석배 △CS본부 △본부부장 겸 CS총괄팀장 심형권 △CS마케팅팀장 이용찬 △CS메트로팀장 김형철 △CS내셔널팀장 조계강
- ◆ 중앙일보 ◇광고사업본부 △광고사업 부분부장 한정희 △광고국장 겸 광고데스크 겸영택 △광고국장 이상재 △사업국장 구명서 △AD비즈니스팀장 최명기 △AD비즈니스팀장 이주형 △AD마케팅팀장 서주환 △사업기획팀장 김성원 △S&P팀장 고일권 △중앙일보플러스 JMAP 광고부문장 박창준 △신사업국 △신사업국장 정경민 △뉴스제작국 △뉴스제작2팀장 김주영 △뉴스제작3팀장 김진일 △마케팅솔루션본부 △마케팅솔루션팀장 이형강 △솔루션영업팀장 민준식 △뉴스플랫폼팀장 △뉴스서비스실장 정진환 △기획2팀장 김유리 △개발2팀장 강희훈 △개발3팀장 김병주 △대표직속 △일본지사장 신동화 △비즈니스플랫폼팀장 김세진 △중국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신경진

- ◆ JTBC ◇보도총괄 △보도부국장 겸 뉴스제작에디터 배원일 △정치에디터 김성택 △경제정책에디터 조민근 △탐사주말에디터 김준솔 △디지털에디터 이승녕 △정치팀장 남궁욱 △국제외교안보팀장 안익근 △정치부회의팀장 박성태 △정책팀장 유상욱 △산업팀장 이태경 △소비자생활팀장 구희령 △주말취재팀장 조민중 △뉴스커넥트팀장 김백기 △디지털뉴스팀장 김한별 △스포츠문화팀장 오광춘 △탐사기획팀장 손용석 △뉴스제작1팀장 이세영 △뉴스제작2팀장 이정현 △뉴스제작3팀장 정상경 △보도제작1팀장 이영배 △보도제작2팀장 송원섭 △보도제작3팀장 전용우 △탐사취재팀장 정용환 △제작총괄 △애능국 특임CP 윤현준 △애능국 1CP 성치경 △애능국 2CP 김형중 △애능국 3CP 김수아 △애능국 4CP 황교진 △애능국 5CP 김미연 △애능국 6CP 김은정 △엔터콘텐츠운영팀장 김유석 △엔터콘텐츠기획팀장 한아람 △채널사업본부 △영업기획팀장 윤영준 △영업팀장 박유현 △편성실 △편성기획팀장 양지영 △편성팀장 이유림 △브랜드실 △브랜드실장 겸 브랜드디자인1팀장 김혜진 △브랜드디자인2팀장 채주용 △브랜드디자인3팀장 김은호 ◇경영지원실 △경영기획팀장

- 박준석 △총무팀장 김해남
- ◆ JTBC플러스 ◇트렌드부문 △스튜디오Live 사업본부장 배경민 △스튜디오닷본부장 김은정 △스튜디오닷본부사업국장 광도훈 △엘르BU 엘르사업팀장 정명동 △엘르BU 엘르편집팀장 채은미 △엘르BU 엘르기획팀장 배상현 △코스모폴리탄BU 코스모폴리탄사업팀장 유상규 △코스모폴리탄BU 코스모폴리탄편집팀장 박해수 △코스모폴리탄BU 코스모폴리탄기획팀장 김서희 △에스콰이어BU 에스콰이어사업팀장 김재원 △에스콰이어BU 에스콰이어편집팀장 민병준 △에스콰이어BU 에스콰이어기획팀장 박정운 △바자BU 바자사업팀장 임용규 △바자BU 바자편집팀장 조세경 △바자BU 바자기획팀장 채윤영 △비주얼팀장 이영란 △유통&커머스팀장 우광채 △스튜디오Live사업본부 Live Ex팀장 임은정 △스튜디오닷본부 스튜디오닷1팀장 민영 △스튜디오닷본부 스튜디오닷2팀장 김중학 △스튜디오닷본부 스튜디오닷3팀장 박경희 △경영기획팀장 김승환 △인사팀장 박원영
- ◆ JTBC미디어텍 ◇영상편집팀장 김황주 △뉴스디자인팀장 오영관 △영상취재팀장 이주현
- ◆ 조인스중앙 ◇문화사업부문 △스포츠·이벤

- 트팀 팀장 정진현 △뉴비즈팀 팀장 안유림 △WIDE팀 팀장 이소정
- ◆ 아시아투데이 ◇선임 △부사장 정규성 ◇승진 △편집국 경제부장 부국장대우 이규성 ◇전보 △편집국 뉴미디어부장 겸 국제부장 진현탁
- ◆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총괄이사 임미령
- ◆ 시사저널이코노미 △시사저널e편집본부 편집국장 이사대우 조영훈
- ◆ 뉴스프리존 △편집국장 한운식

부음

- ▲ 광라영(전 삼흥산업 대표)씨 별세, 광복역(전 TBC 대구방송 이사)·우진·충철(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명예교수)·동훈(전 쓰리엠 미국 본사 본부장)씨 부친상, 남봉우(남외과의원 원장)씨 장인상, 광정렬(외교부 정책기획담당관 실 서기관)·석렬(우아한형제들 변호사)·창렬(조선일보 사회정책부 기자)·준렬(포스코아메리카 과장)·정민(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부부장)·예진(제이 약사)씨 조부상 = 31일 오전 2시 28분, 대구 모례야장례식장, 발인 1월 3일 오전 8시, 053-801-9999

축제 명소 된 영동대로... 5만명 운집 카운트다운

현대자동차

대규모 새해맞이 행사 성료

현대자동차가 고객과 함께하는 대규모 새해맞이 행사인 '2020 영동대로 카운트다운'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가 지난달 31일 서울 코엑스 앞 영동대로 일대에서 진행한 대규모 새해맞이 행사 '2020 영동대로 카운트다운'에는 약 5만명의 시민들이 운집해 열정적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며 새해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송가인, 윤도현 밴드, 다이아믹 듀오, 터보, 하하&스쿨, 마이티마우스 등 인기 가수의 공연을 비롯해, 사전 온-오프라인 행사로 ▲인기 유튜버 창현의 '거리노래방' ▲위시 카(Wish Car) 인종샷 이벤트 등 고객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현대차 '2020 영동대로 카운트다운' 행사 전경. /현대자동차

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고객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가 뜨거운 관심 속에 잘 마무리돼 기

쁘다"며 "영동대로 카운트다운 행사에 모인 모든 분들의 새해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포털·이용자 성장하는 한해 되길



기지수첩

구서연 (산업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야의 종소리', '경자년'

2020년 새해가 밝은 시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이 보여주는 실시간 이슈 검색어(실검) 상위권에 오른 단어들이다. 실검은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많이 검색하는 이슈를 나타내는 순위로 그동안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지표로 쓰였다. 사람들은 심리상 실검 순위가 오른 이슈를 클릭해 살펴보기 때문에 파급력 또한 크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실검은 논란의 중심이 됐다. 특정인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힘을 모아 '00 힌내세요', '00 사퇴' 등을 실검 순위에 올렸다. 언론 조작의 장으로 변질된 모습이다. 특정 상품이 실검 순위를 장악하는 일도 벌어졌다. 광고업체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제품 이름을 검색하도록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언론사는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실검에 나온 내용을 담은 기사를 쏟아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자 많은 사용자가 피로감을 느꼈고 포털 업체는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는 오는 2월 중 실검을 폐지할 예정이다. 실검을 대체할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했지만 통 큰 결단이라고 느껴졌다. 실검을 통한 사용자 유입량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댓글 기능도 초기 기대했던 이점과는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면서 실검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알 수 있어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장 뉴스 댓글창을 둘러봐도 욕설과 비방 댓글이 상당한 것을 볼 수 있다.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 자살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아예 연예뉴스 댓글을 없애기도 했다.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본다.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는 포털 업체의 책임감을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다. 올해에는 이 같은 올바른 움직임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2020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알리는 기사에는 모처럼 훈훈한 댓글이 많이 달렸다. 포털의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 노력과 함께 이용자의 윤리의식 또한 함께 성장하면 좋겠다. /yuni2514@metroseoul.co.kr

한국지엠 쉐보레 1월 한달간 최대 10% 할인

한국지엠 쉐보레가 1월 한달 간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파격 혜택을 제공하는 '2020 쉐보레, 파인드 뉴 이어'를 진행한다.



한국지엠 쉐보레 더 뉴 말리부

1월 쉐보레에 따르면 주요 차종별로 2019년 생산 모델 또는 2019년형 모델을 대상으로 최대 60개월 전액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초기 구입 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선수금을 없애고 최대 60개월까지 장기 무이자 할부를 통해 월 납입금을 낮춘 프로그램이다.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램 이외의 혜택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차량 가격 최대 10%에 이르는 혜택이 제공된다. 차종별 혜택은 ▲말리부 디젤 10% ▲이쿼닉스 10% ▲카마로 SS 10% ▲스파크 9% ▲트랙스 8% 등이다.

7년 이상 된 차량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스파크·트랙스 구입 시 추가 30만원, 말리부·이쿼닉스 구입 시 추가 50만원의 특별 혜택이 제공된다.

또 다마스과 라보 구입 고객에게는 사업자 대상 특별 프로모션을 통한 20만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7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양성운 기자

오늘의 운세 1월 2일 (음 12월 8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중어를 순리로 풀어야 할 듯. 48년생 자손의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60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자. 72년생 배우자가 나의 고생을 알아주니 마음이 가볍다. 84년생 조금이나마 일을 그려볼 수 있으니 신중.
- 소** 37년생 내가 자식의 미래라고 생각. 49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나의 허물도 드러난다. 61년생 호랑이띠 말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풀린다. 73년생 지출로 새로운 근심이 생긴다. 85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 호랑이** 38년생 고칠 수 없는 마음은 버리면 된다. 50년생 숨은 실력을 발휘해서 부러움을 산다. 62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 74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운 것은 마찬가지이니 취미를 가져보자. 86년생 부부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해줘야.
- 토끼** 39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51년생 이익이 없고 가난하다고 순수한 것은 아니다. 63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사람을 경계. 75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하늘도 높고 세상도 넓다. 87년생 실속은 별로 없는 속 빈 강정.
- 말** 40년생 이만하면 원더풀한 인생이다. 52년생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살펴라. 64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76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포기할 줄도 알아야. 88년생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사회생활이 힘들다.
- 뱀** 41년생 감정을 절제하고 칭찬하라. 53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려오니 행복이 많다. 65년생 성공은 아직 멀다. 77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운동을 하고 소식하라. 89년생 성실에서 멀어질수록 불편하고 허무함이 밀려온다.

- 말** 42년생 행복한 이웃이 옆에 있어서 좋다. 54년생 체면치레로 지갑을 털린다. 66년생 매사가 귀찮고 심드렁한 날. 78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마음을 겸손하게. 90년생 거울은 반드시 혼자 웃지 않는다.
- 양** 43년생 스스로를 응원하고 격려. 55년생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 67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79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 91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간다.
- 원숭이** 44년생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킬 운이 온다. 56년생 아랫사람이 길을 터주니 일이 수월하다. 68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도 있다. 80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설득시킬 수 있는 것. 92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
- 닭** 45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다. 57년생 좋은 것을 포기하고 마음이 아프다. 69년생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81년생 참기 힘든 건 잊혀지는 것. 93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를 신어야 한다.
- 개** 46년생 좋은 일을 행하니 행운이 찾아온다. 58년생 강물이 바다로 진출하는 격. 70년생 낭비요소를 찾아서 구멍을 메꿔야 한다. 82년생 그물을 쳐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94년생 여름이 가면 부체는 제 역할을 다한 것.
- 돼지** 47년생 양보다 질을 따지고 선택하라. 59년생 멍석이 깔렸으니 미루듯 일을 마무리. 71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하니 깊이 생각하고 행동. 83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95년생 양보로 동료와의 의견충돌을 막자.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3					
7	5							1
		4	5		1	2		
5				3	6	9		
						4		2
2			1	4	3			
		5	4		9	1		
3	7							9
	9		6					

		1						
3			4				5	1
							4	
	8					7	2	9
					2		4	5
						1		8
	7	5	9					8
	6		8	7			2	
			5	6	3	9		

스도쿠 정답								
5	2	1	8	9	1	6	7	4
6	7	8	2	5	1	9	4	3
3	9	1	6	4	7	5	2	8
9	5	8	7	1	2	6	8	3
2	4	7	5	6	8	1	9	3
8	1	6	9	3	2	7	5	4
4	8	7	1	9	5	7	3	6
1	9	8	7	6	2	5	4	3
7	6	5	4	2	3	8	9	1
7	4	6	9	5	1	2	8	3
1	5	2	7	8	3	9	6	4
8	9	3	1	6	4	7	5	2
5	7	1	8	2	9	6	3	4
6	2	4	5	7	8	9	1	3
9	6	7	4	1	3	8	5	2
2	1	5	9	8	7	4	6	3
4	8	6	5	2	3	7	1	9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四季

송구영신 경자년 새해

글로벌시대 전 세계가 2020년 새해 1월을 맞이했다. 특별히 같은 수가 반복되는 2020년이 되다 보니 뭔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역학적으로 육십간지 중 경자(庚子)는 37번째이다. 납음은 벽상토(壁上土)이다. 벽상토란 벽에 붙은 흙을 의미한다. 흙은 땅에 퍼져 있는 것이 기본이라 무토(戊土)나 기토(己土)가 토의 기본이 된다. 그러나 경자년을 납음으로 볼 때 벽상토로 본 것은 흙의 쓰임새에 있어 집이나 건물의 벽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 흙으로 발라 바람을 막고 추위와 더위를 차단하는 기능 또한 인간의 삶에 요긴한 것이라 나름의 실용의 묘가 뛰어난 간지로 보는 것이다. 물상으로는 양의 금 기운과 음의 물기운이 기동을 이뤘으니 하늘의 금 기운이 땅의 물을 이롭게 함이다. 지지의 쥐는 천간의 기운으로 흰 쥐이다. 흰 쥐는 상서롭게 영리함을 나타낸다. 지지(地支)인 자(子)는 '다시 돌아옴' 또는 '회복'의 뜻이 있다고 역에서는 해석한다. 그렇게 본다면 2020년 경자년은 하늘의 바르고 곧은 금 기운이 인간들의 세상에 변화를 가져와 바람직한 가치를 회복하는 시기가 될 것을 기대해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송구영신(送舊迎新) 호시절(好時節) 만물고대(萬物苦待) 신천운(新天運)"이라 한 남사고 선생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조선시대 명종 때 사람인 격암 남사고 선생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때는 좋은 때라는 의미와 기대로 '송구영신(送舊迎新) 호시절(好時節)'이라 했다.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운을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학수고대하기에 좋은 시절이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리라.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 경자년에는 실질과 명분이 상충하지 않는 실리로서 호시절을 구가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5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59호

데이터 규제 먼저 풀고 AI 인재 전략적 육성을

AI 후진국 벗어나려면...

지난해 국내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이 될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따라잡자'는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기업들도 앞다퉀 AI 서비스 및 제품들을 선보였다.

지난해 7월 청와대에 초청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AI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의 두뇌'로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NIA)가 발간한 '2019 NIA AI 인덱스-우리나라 AI 수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은 미·중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AI 관련 기업 수는 26개로, 주요 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중국·인도·이스라엘 중 8개국 중 꼴찌였다.

미국이 2028개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AI는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두뇌'로 일컬어지고 있다. 사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방식을 소개하는 영상물이 설치된 한 채용박람회의 모습. /연합뉴스

고 있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으로 인해 얼굴 사진 등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AI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AI 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는 얼굴 사진 등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가져다 사용했지만 데이터 3법 규제가 강화되면서 불법으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하면 안 된다"며 "중국에서 사진 1장에 500원을 주고 구매하기도 했지만, 개인정보 문제로 중국 밖으로 사진이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품질의 얼굴인식 AI를 위해 기본 300만장이 넘는 사진이 필요한데, 보통 길에서 요청해 1명의 사진을 찍는데 2만원 정도 사례비를 줘야 해 스타트업으로서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비용 문제로 1000명의 사진 데이터로만 AI 기술을 개발하기도 해 현재는 사람과 원숭이를 구별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한 AI 개발자 포럼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발표자에게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는지' 질문이 제기됐다. 이 대기업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회사 운영에 사용하는 총 비용에 가까울 정도로 데이터 수집에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수의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은 비용 문제로 아직도 불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근거를 요청하면 데이터를 제시할 수 없으며, 불법 수집이 발각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유튜브가 어린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2000억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 정부와 여당 주도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을 넘겼음에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AI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양의 데이터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다만, 산업 데이터, 판례 등 법률 데이터, 의료 데이터 등은 산업 특성

상 공개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전문 AI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법률 분야를 보더라도 하급식 판례의 1~2%만 공개돼 있을 정도로 데이터 공개가 안 돼 AI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AI 협회인 지능정보산업협회 관계자는 "제조업 AI를 개발하려면 제조기업 데이터가 필요한데 산업 도메인은 공개가 안 돼 개발이 어렵다"며 "우리가 지난 11월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대회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기존 데이터를 제공해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경진대회를 많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스타트업을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1850만건을 개방한 데 이어, 지난 연말 2500만건, 올해에는 2배 정도인 5000만건 이상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올해 600억원을 들여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에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바우처를 지원했지만, 스타트업들은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이 주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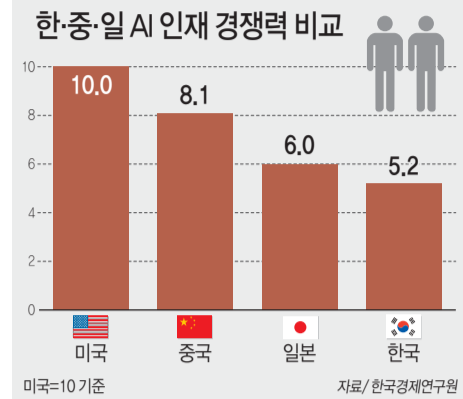
◆"AI 개발자, 뽑고 싶어도 올 사람이 없어"

지난해 AI 스타트업 및 중견·중소기업들은 다수의 AI 개발자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개발자 채용은 그저 기업들의 희망 사항으로, 많은 급여를 줄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좋은 AI 전문 개발자를 채용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로 어렵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값비싼 개발자를 뽑을 형편이 안 돼 정부가 AI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발자 임금의 50% 정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는 '일부 기업에만 너무 큰 특혜'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중견·중소기업이 개발자 채용 후 1년 정도 공을 들여 교육을 시켜놓으면 2년 정도 만에 대기업 등으로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한다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등도 마찬가지로 AI 개발자들이 수년 만에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한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우수한 AI 개발자를 뽑으려면 구글 등에서 스카우트해야 하는데, 경쟁이 치열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



직 AI 인재가 많지 않아 대기업에서 높은 임금을 주고 스카우트해 와도 회사가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학·연 인공지능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AI 인재 현황 및 육성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AI 인재 경쟁력도 주요국에 미치지 못했다.

AI의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AI 인재 경쟁력이 10점으로 했을 때, 한국은 5.2로 절반 정도로 평가됐다. 반면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AI 선도국에 올라선 중국은 8.1로 높았고 일본도 6.0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또 전문가들은 국내 AI 인력 부족률이 평균 60.6%에 달한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이 AI 인재가 적은 상황에서는 AI 인재가 스타트업을 창업하도록 정부가 창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AI 개발자를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독려해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자신의 회사를 설립해 고차원적인 기술 개발을 하는 쪽이 더 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AI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 중에 카이스트 출신의 AI 개발 경험자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AI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은 또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운 만큼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AI 개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 AI 인재 육성 AI 관련 학부 증원, 양질의 교사 수급이 먼저

또 정부가 AI 인재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을 기존 3개에서 올해 8개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학부 제도의 변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명문대인 서울대학교 컴퓨터 공학과는 2000년 컴퓨터공학과와 전산학과가 합병돼 만들어졌는데, 두 학과 정원을 합해 120명이었지만 합병으로 90명으로 줄고 추가 감축으로 현재는 55명인 상황이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원을 늘리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교육부는 서울대 정원을 늘리면 지방대가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로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원을 5배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까지 관내 특성고 10곳을 AI고나 빅데이터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 단지 학생 유치를 위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양질의 교사 수급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데이터 3법으로 AI 개발 차질 여전 AI 경쟁력 위해 데이터 확보는 필수 "우수한 개발자 채용 하늘의 별 따기" 정부의 AI 인재 교육·창업지원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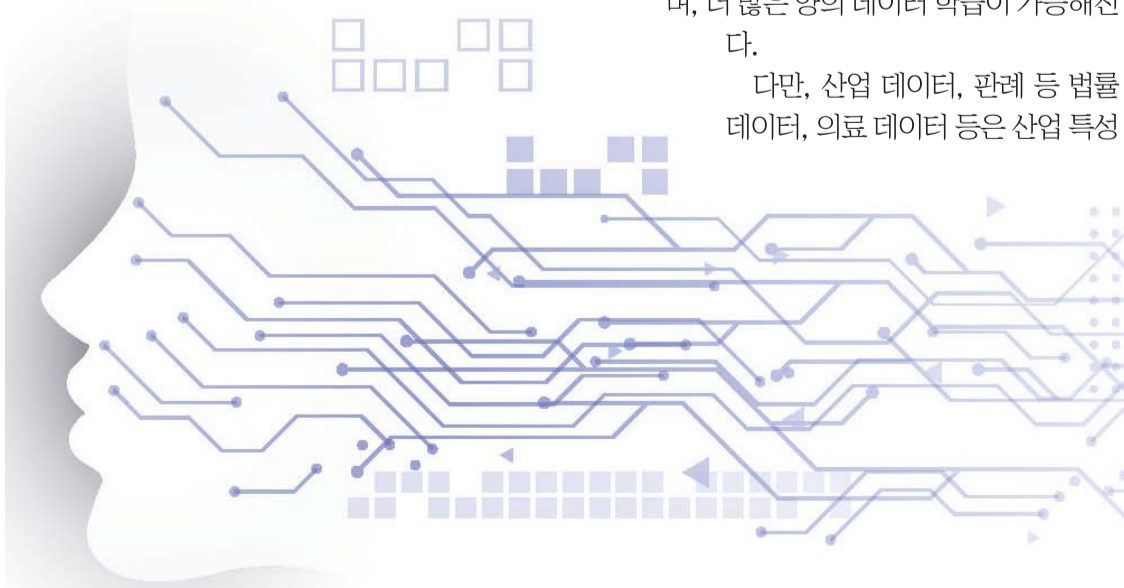
1011개 순이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그나마 나은 편으로 우리나라가 465개로 1393개를 보유한 미국의 33.4% 수준이었다.

◆AI업계 비용·규제 등으로 데이터 수집 어려움 '한숨'

정부는 AI 후진국에서 탈피해 선도국을 따라잡기 위해 지난달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등을 목표로 하는 AI 국가전략을 내놓았다.

AI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AI가 엔지니어라면 데이터는 연료로 AI의 성공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딥러닝을 포함한 머신러닝 방식의 AI는 스스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로, 대량의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시켜야 하고, 성능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AI 스타트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들도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



‘묻지마 정원감축’ 장기적으론 전문인력 부족 역풍 초래

위기의 대학, 어디로

대학, 정책오류 대학에 전가 비판 올해 ‘학령인구 역전 현상’ 첫 해 교육부, 대학진단 ‘정원 감축’ 속도 선발지표 비중상향, 대학 통폐합 유도 공급인력 감소, 신규인력 부족우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들의 위기 감은 2020년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을 통해 사실상 ‘묻지마 정원 감축’에 나서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청년 전문인력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교육부의 정원 감축 정책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 우려도 제기된다.

◆ 4년 뒤 신입생 2000명 규모 대학 60 곳 문 닫아야

올해 대학 신입생은 49만7218명으로, 고3졸업생 47만9376명보다 1만7842명이 많다. 대학 입학자원이 대입 정원보다 적어지는 ‘학령인구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첫 해다. 4년 뒤인 2024년에는 대입 정원이 고3 졸업생보다 12만3748명 많아진다. 대입 정원과 고3 졸업생 수만 놓고 보면, 신입생 2000명을 뽑는 중소규모 대학 60곳은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뽑지 못하는 계산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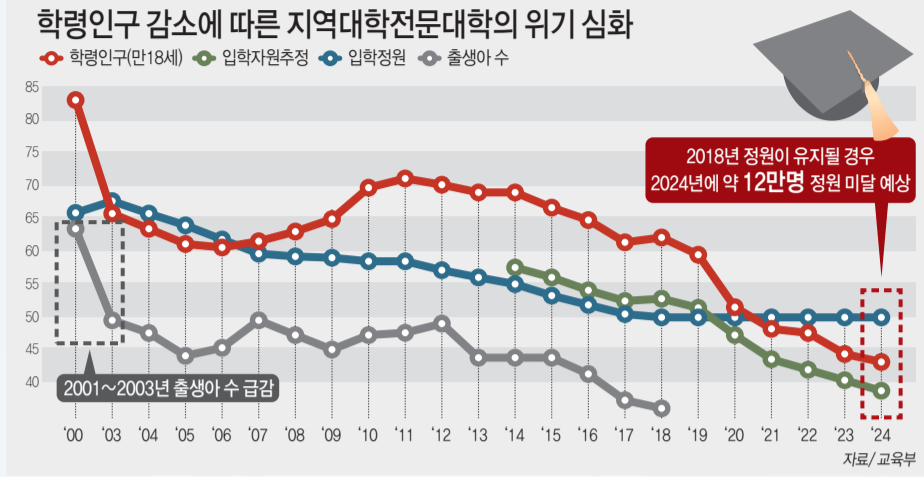
교육부는 이처럼 급격한 입학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 대학별 등급을 매겨 하위 등급 대학 정원을 강제 감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학들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에 정부가 일반재정지원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정원 감축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앞으로의 대학진단에서는 정원 감축 유도가 더 강화된다. 교육부가 최근 확정된 2021년 대학진단 기본계획을 보면, 대학들의 학생정원 충원율과 전임교수 비율 등 정량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고,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진단을 실시해 일반재정지원금을 준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아 사실상 폐교 통고나 다름 없는 셈이다. 현재 재정지원제한대학은 11개교로, 이들을 포함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2021년 2월 지정해 발표하고, 대학진단은 5월 7월 실시될 예정이다.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등 학생 선발 지표 비중이 크게 상향된다. 신입생 충원율은 12점, 재학생 충원율은 8점 등 충원율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높였고, 신입생 충원율 비중은 앞선 진단보다 무려 3배 확대했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일수록 스스로 줄여야 하는 입학 정원이 커지는 셈이다.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 중소 대학을 배려해 5개 권역을 나눠 평가하고 90%를 우선 선정해 재정지원하기로 했지만, 권역별 경쟁은 지금처럼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취업률 만점기준은 수도권과 지역 대학에



차등 적용하지만, 차등 비율은 크지 않다.

대학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금 8600억원이 지원되지만, 탈락한 대학은 특수목적사업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만 지원되고,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은 특수목적사업 중 국책사업 참여 제한을 받는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돼도 일정수준 이상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해야 재정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전임교원확보율 배점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였다. 재학생 수 대비 전임교원비율과 만점 기준은 수도권과 지역을 구분해 적용한다. 지난해 감사법 개정 등에 따라 감사를 대량 해고하는 경우 감점하는 점수는 기존 2~3점에서 5점으로 비중이 커졌다. 총 강좌수를 줄이거나 비전임교원 대비 강사 강의 비율이 낮으면 감점을 받는다.

대학간 통폐합도 유도된다. 통폐합 대학의 경우, 편제 완성 이후 2년이 미도래해 진단에 참여하지 않아도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폐합을 추진 중인 대학은 통합된 대학의 신입생이 입학하는 해부터 신청지원이 가능하다. 통폐합 대학이 아니면서 진단 미참여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은 물론 특수목적재정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 향후 10년, 청년 전문인력 공급 부족 사태 오나

이처럼 교육부의 대학진단은 대학 정원을 스스로 줄이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학 정원을 강제 감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학들은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시행 이후 대학 정원이 급격히 증가해 사실상 정부 정책 오류에서 정원 감축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교육부의 인위적인 정원 감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역명을 요구한 수도권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유럽 등 OECD 국가 대학의 80% 이상은 국공립대학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만, 90% 가까이 사립대학인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고등교육 비용을 학생 등록금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증가없이 정원을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부 정책 오류를 시인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대학진단을 시행할 경우 충원율 지표가 낮은 지방 소규모 사립대부터 타격을 받아, 지역 대학의 붕괴와 수도권 대학 집중화, 서열화 등의 기존 고등교육 폐해가 더 확대될 것이라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교육부의 ‘묻지마 정원 감축’이 향후 노동인력 변화 추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대졸자 등 공급인력이 크게 감소하고 신규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고용노동부의 ‘2018~2028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을 보면, 향후 10년간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청년 신규인력 38만5000명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인력은 고교·대학 졸업자(실업기간 1년 이내 단기실업자 포함)로, 총 인구증가는 둔화되지만 경제활동 인구(15세~65세)가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특히 고졸·대졸자 등 청년인구가 감소된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대졸자에 대한 초과수요가 인문사회·공학계열의 공급부족에 따라 커지고, 이는 졸업생 감소와 기존 인력의 은퇴에 따른 대체 수요가 지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연령별 청년층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58년 이전 출생자들이 65세 인구가 편입되는 2023년을 정점으로 청년층 신규인력 감소가 이어

10년간 산업별 취업자 증감 전망 (2018년~2028년) 단위: 천명



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산업분야별 노동시장 인력 수요에 따른 대학의 학문분야 구조조정도 요구된다. 대졸자와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요를 맞춰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여야 한다는 것. 향후 10년간 노동시장 인력 수요는 서비스업을 주도로 제조업 중 전자 분야/의료·정밀기기, 의료용 물질·의약품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2만명)은 급속한 고령화로 수요가 지속 증가, 증가폭이 가장 크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5만명), ‘정보통신업’(12만명) 증가도 전망된다.

공공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3만명) 일자리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빅데이터 처리용 메모리 등 수요 증가에 따른 ‘전자’(2만5000명) 업종, 헬스케어 등 보건 수요 확대로 인한 ‘의료·정밀기기’(2만8000명), ‘의료용 물질·의약품’(1만3000명) 분야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금속’(-3만1000명), ‘섬유’(-1만7000명), ‘의복’(-3만8000명), ‘인쇄’(-2만5000명) 등의 산업은 지속되는 구조조정으로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다.

특히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 수요는 증가한다. 숙련 수준이 높은 전문가(63만명)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 전망이다. 이외에도 ‘돌봄·보건 서비스’, ‘사회복지 관련’, ‘보건의료 관련’, ‘치료·재활사’ 등 보건복지 관련 직업, 컴퓨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전문 가도 큰 폭 증가가 예상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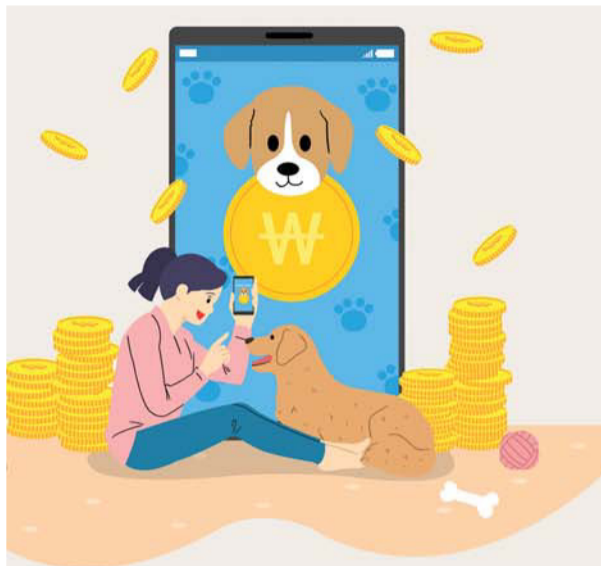
‘마이 펫’을 부탁해... 보험부터 신탁까지 평생 동반금융

펫코노미 시대

펫금융 활기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28%
시장규모 3년새 60% 성장한 5.8조

메리츠화재 ‘펫퍼민트’
최대보상 70%, 수술비 200만원
한화손해보험 ‘펫플러스’
만 10세까지, 입·통원 15만원 한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비문’으로 반려견 구분 시스템 도입



펫보험 보험사 비교

	메리츠화재 펫퍼민트	DB손해보험 아이러브	한화손해보험 펫플러스	삼성화재 애니펫
가입 가능연령	1세~만8세	1개월~만8세	3개월~만10세	60일~만6세1개월
갱신주기	3년	3년	1년	1년·2년
탈구질환	보장(술개골면책기간1년)	보장(특약선택시)	보장(플랜선택시)	보장(50%)1회플랜선택시
구강내질환	보장(술개골면책기간1년)	보장(특약선택시)	보장(플랜선택시)	X
피부질환	보장(술개골면책기간1년)	보장(특약선택시)	보장(플랜선택시)	보장 1회플랜선택시
치료비 보상비율	50%·70%	50%·70%	50%·70%	70%
가입대상	개·고양이	개	개	개
회당 보상한도	수술비 200만원 입통원 15만원	수술비 100·150만원 입통원 10만원	수술비 150만원 입통원 15만원	수술비 100·150만원 입통원 10·15만원
보상회수	보상한도 내 횟수 제한없음	수술 2회, 입통원 각각20일	수술 2회, 입통원 각각20일	수술 2회, 입통원 한도내 제한없음

자료/각사

‘개 팔자가 상팔자’. 일이 바쁘고 고될 때 아무 일도 안하고 돌아다니는 개의 삶이 자신들의 삶보다 낫다는 뜻으로 흔히 하는 말이다. 그러나 요즘은 다른 의미로 ‘개 팔자가 상팔자’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동물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고 있다. 각종 질병에 대비한 ‘보험’부터 집사가 세상을 떠나도 재산이 상속돼 안정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신탁’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금융상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현황 조사 보고서’를 보면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27.9%에 달한다. 1일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조8900억원으로 3년 전인 2015년(1조8000억원)보다 60.5% 성장했다. 연구소는 이 시장이 오는 2020년에는 5조8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반려동물 치료비엔 ‘펫보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고,

양육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험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고령 반려동물 비중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의료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려동물보고서를 보면 반려견의 연령은 1~3살이 5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4~5살 20%, 6~7살 10.5%, 8~9살 7.3%, 10살 이상 10.6%이다.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는 91일부터 만 8세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치료비 보상비율은 최대 70%로, 탈구·구강·피부 질환 등을 보장한다. 회당 보상한도는 수술비 200만원, 입·통원 15만원이다. 한도 내에서 보상회수는 제한 없다.

한화손해보험의 ‘펫플러스’는 3개월에서 만 10세까지 반려동물이 대상이다. 치료비 보상비율은 최대 70%까지이며, 탈구·구강·피부 질환은 특약 선택 시 가능하다. 수술비 150만원, 입·통원 1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보상회수는 수술 2회, 입·통원은 각각 20일로 제한

된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개의 코모양인 비문으로 반려견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폰만으로 반려견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반려견의 개체 확인이 어려운 탓에 까다로웠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주인 떠나도...반려동물을 부탁해 ‘펫신탁’**

반려동물 신탁은 주인(신탁자)이 사망하거나 병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 반려동물을 돌봐 줄 새로운 주인(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물론 ‘새로운 주인’은 기존 주인이 생전에 직접 지정할 수 있다.

현재 반려동물 신탁은 미국과 일본에서 활성화 되었다. 미국은 유언형태로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신탁의 권리능력이 사람에게만 인정된다. 따라서 반려인이 자신의 재산을 반려동물에게 상속하겠

다는 유언장 등을 작성해도 현행 민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신탁비용으로 반려동물의 생존기간을 10년으로 계산했을 때 사료비, 병원비, 장례비, 매장비용 등을 포함해 200만~300만원 정도로 산정하는 등 구체적인 비용을 책정한다.

새로운 주인이 상황 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동물보호 시설에 양육을 의뢰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는 KB국민은행의 ‘KB펫코노미신탁’과 ‘KB금지옥엽신탁’이 있다. ‘KB펫코노미신탁’은 주인이 사망한 뒤 반려동물이 새 주인을 만났을 때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KB펫코노미신탁’은 반려동물 용품 할인, 행사·카페이용, 목욕탕·해수욕장이 용 시에도 금융상품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B금지옥엽신탁’은 조부모나 부모, 삼촌 등의 위탁자가 사망 후 손주나 자녀, 조카로 새로운 주인이 지정되면

매년 또는 매월 용돈을 지급하거나 대학입학, 자동차구입, 결혼자금 등의 특정 이벤트에 신탁한 자금을 지급한다.

◆ **돈 모으고 할인 받고... ‘펫 예·적금’**
이 밖에도 시중은행들도 반려동물 예·적금을 출시하고, 반려동물의 용품부터 병원비, 장례비 등을 할인해주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위드펫 적금’은 반려동물 사진을 5장 이상 등록하면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제휴 동물병원, 쇼펄 등에서 공유하는 QR코드를 등록하거나 동물등록증을 제시하면 최고 연 2.0%의 금리를 제공한다.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위해 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 금리로 해지가 가능하다.

IBK기업은행의 ‘참 좋은 내 사랑 펫카드’는 전국 동물병원과 카페, 호텔, 훈련소 등 반려동물 업종으로 등록된 1만2000여 개 가맹점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도 5% 할인이 적용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이마트, 140억 규모 ‘겨울패션 할인행사’

의류·잡화 등 2주간 최대 70% 할인

갑작스런 한파의 기습에 이마트가 겨울 패션 클리어런스 행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마트는 오는 2일부터 2주간 140억 규모의 ‘데이즈/브랜드의류 겨울패션 할인행사’를 연다.

의류, 이너웨어, 잡화 등 겨울 패션 아이템 전부문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할인율을 대폭 높여 데이즈는 최대 50%, 브랜드의류는 최대 70% 할인해 판매한다. 데이즈의 대표 행사상품으로, ‘남성 마블 맨투맨’ 5종을 1만5900원에, 보온성을 높인 ‘남/여 본딩팬츠’ 5종을 각각 1만9900원/1만5900원에, 기모/보아 소재의 ‘유아동 겨울 맨투맨’ 20여종을 9900원/1만2900원에 판매한다.

또한, ‘남성 구스다운 베스트/점퍼’ 10여종을 50% 할인한 2만4950원~3만9950원에, ‘남/여 스포츠 소프트 웨어 티셔츠’를 1만5900원에 준비했다.

이너웨어와 겨울 잡화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 겨울 라운지웨어, 성인/아동 내복, 데이즈 히트필의 전품목을 대상으로 2개 이상 구매시 30% 할인한다.

이밖에도, 브랜드 여성 아우터를 최대 70% 할인하며, 허쉬파피 등 여성 겨울부츠 전품목을 최대 30% 할인한다.



고객이 이마트 데이즈 매장에서 할인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마트

또한, 새해 등산족을 위해 콜핑 티셔츠와 팬츠를 균일가 2만9000원/3만90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가 이같은 대규모 클리어런스 행사를 준비한 이유는, 평년보다 따뜻한 12월 날씨 탓에 패션 매출이 주춤했기 때문이다.

올해 12월(1일~30일) 평균기온은 1.7도로, 2016년 이후 3년 만에 영상권으로 진입했으며 지난 10년 동안의 12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역대급 한파가 찾아온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와 올해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면서 두툼한 점퍼나 롱패딩 등 금액대가 높은 겨울 의류 판매가 부진했다. 하지만 지난 31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영하의 강추위가 시작되면서, 포근했던 12월 날씨에 겨울 의류 구입을 미뤘던 소비자들의 발길이 돌아올 전망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 “경자년, 똑똑한 출산 준비하세요”

출산강좌 기획, 캐릭터 출산선물 등 이달 쥐띠 아기들 위한 마케팅 다채

‘쥐의 해’인 2020년 경자년을 맞아 롯데백화점은 1월 한 달간 쥐띠해에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인다.

1월은 백화점 출산·유아용품 매출이 연중 가장 높은 달로, 롯데백화점은 매년 1월, 그 해의 12지신 띠에 맞는 출산·유아용품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본점, 노원점, 건대스타시티점, 김포공항점, 수원점 등 주요 점포에서는 쥐띠 해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가 들 수 있는 출산 관련 문화센터 강좌를 기획했다. 1월 본점 문화센터에서는 ‘오가니 쥐띠 친환경 아기용품 만들기’를, 노원점에서는 ‘2020년 쥐띠 오가니



롯데백화점 유아용품 매장에서 고객이 2020년 생 출산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쇼핑

코튼’을, 건대스타시티점은 ‘2020 쥐띠 친환경 장난감, 침구’ 강좌를 진행한다. 또한, 김포공항점에서는 ‘순산을 위한 임신부 요가’를, 평촌점에서는 ‘쾌통분만 임신부 요가’ 강좌가 열린다.

쥐를 형상화한 캐릭터 출산선물도 선보인다. 유기농 유아복 전문 브랜드 ‘오

가닉 맘’에서는 쥐 캐릭터가 그려진 베넷 저고리, 상하복, 손싸개로 구성된 ‘쥐띠 탄생 기념 선물 세트’를 6만 6000원에, 배넷 가운, 속싸개, 손싸개, 발싸개의 4종으로 구성된 ‘쥐띠 해 출산 세트’를 4만 3800원에 판매한다. 유아복 브랜드 ‘에프와’에서는 ‘쥐띠해 기념 출산 베딩용품 세트’를 31만 6800원에, ‘블루독 베이비’ 브랜드에서는 ‘마우스 베넷 세트’를 6만 5000원에 선보인다.

유아 전문 주얼리 브랜드 ‘폼에스타’에서는 ‘12지신 쥐띠 메모리얼 각인 실버 미야방지팔찌’를 6만 5천원에, ‘12지신 쥐띠 메모리얼 각인 잼스톤 볼 실버 미야방지 목걸이’를 13만원에, ‘글램 12지신 쥐띠 메모리얼 실버 목걸이’를 11만 9000원에 각각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스타벅스커피 ‘해피 치즈 화이트모카’ 등 선보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아 ‘해피 치즈 화이트모카’를 비롯한 새해 음료 3종과 푸드 6종, MD상품 25종을 전국 매장에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된 ‘해피 치즈 화이트모카’는 부드러운 풍미와 쫄쫄한 식감이 살아있는 크림 치즈 휘핑크림과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이 어우러진 음료로, 단짠 단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점이 특징

이다. 특히 흰 쥐의 해를 상징하는 음료답게 쥐가 좋아하는 치즈와 흰색의 화이트 초콜릿을 활용한 것은 물론, 이름처럼 스타벅스를 찾는 모든 고객이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치피라이가 클까? 내 얼굴이 클까?

NEW

치피라이

한국식 파이형 치킨디저트

(요니엔 / 치즈 / 칠리)
시즈닝과 함께 하면
더욱 맛있습니다.
+ 200원



 더 크고 매운맛
하버네로 (L)
₩4,300

VS



고소한맛 (S)
₩3,400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간도 판매 지역

미래보장 연금?... 수익률 바닥 '불안하기만 한 노후'

당신의 '퇴직연금'은 안녕하십니까

가입자 610만, 적립액 189조원 달해 DC형 사업자 74% 수익률 2% 미만 3% 이상 달성 '전무', 27곳은 1%대

수익률 떨어지는데 체감 수수료율 ↑ "수수료율의 적절한 절대수준 규정 금융사들 암묵적 담합 등 조사 필요"

지난 2005년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래 지난해 가입자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한편, 가입자의 체감 수수료율은 높아지면서 퇴직연금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에선 국민연금의 자금고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결국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시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노후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직장인의 경우 해마다 적립되는 퇴직연금 수익률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느는데 수익률은 ↓

지난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전체 가입 근로자는 610만4704명으로 지난해 579만6986명에 비해 5.31% 늘었다.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019년 말 기준 2018년(167조1000억원)보다 13.0% 늘어난 18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성비는 DB형(확정급여형)이 50.0%로 가장 많았으나 1년 전보다 3.4%포인트 감소했다. DC형(확정기여형)은 3.1%포인트 증가한 47.0%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과 함께 직장인의 대표적인 노후 대비용 상품으로 꼽히고 있는 퇴직연금이지만 저조한 수익률 때문에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자별 DC형 퇴직연금 1년 수익률〉

(단위:%, 2019년 2분기 말 기준)

사명	수익률	사명	수익률
KDB생명	0.07	BNK경남은행	1.7
한화투자증권	0.44	DGB대구은행	1.7
대신증권	0.75	KB국민은행	1.71
신영증권	0.85	KB손보	1.82
신한금융투자	1.08	제주은행	1.82
삼성증권	1.22	신한은행	1.83
NH투자증권	1.26	한화생명	1.87
유안타증권	1.28	삼성생명	1.92
한국투자증권	1.29	삼성화재	1.95
KB증권	1.32	롯데손보	1.96
현대차증권	1.46	동양생명	2
하이투자증권	1.48	하나금융투자	2.04
NH농협은행	1.51	미래에셋대우	2.12
우리은행	1.59	현대해상	2.13
KDB산업은행	1.64	흥국생명	2.17
교보생명	1.65	DB손보	2.21
BNK부산은행	1.65	DB생명	2.22
IBK기업은행	1.67	미래에셋생명	2.23
KEB하나은행	1.67	푸른현대생명	2.26
신한생명	1.68	한화손보	2.27
광주은행	1.68	IBK연금보험	2.38

자료=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 사업자 42곳 중 31곳(73.8%)의 직전 1년 수익률이 2% 미만에 그쳤다. 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27곳에 달하는 사업자가 1%대 수익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1.08%), 삼성증권(1.22%), NH투자증권(1.26%), 유안타증권(1.28%), 한국투자증권(1.29%), KB증권(1.32%), 현대차증권(1.46%), 하이투자증권(1.48%), NH농협은행(1.51%), 우리은행(1.59%), KDB산업은행(1.64%), 교보생명(1.65%), BNK부산은행(1.65%), IBK기업은행(1.67%), KEB하나은행(1.67%), 신한생명(1.68%), 광주은행(1.68%), BNK경남은행(1.7%), DGB대구

은행(1.7%), KB국민은행(1.71%), KB손보(1.82%), 제주은행(1.82%), 신한은행(1.83%), 한화생명(1.87%), 삼성생명(1.92%), 삼성화재(1.95%), 롯데손보(1.96%) 순이었다.

특히 KDB생명은 수익률이 0.07%에 그쳤고, 한화투자증권(0.44%), 대신증권(0.75%), 신영증권(0.85%) 등도 수익률이 1%를 넘기지 못했다.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직전 1년간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2%를 넘는 사업자는 삼성증권(2.13%)과 롯데손보(2%) 두 곳에 불과했다.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직장인의 노후 보장 수단이란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들이 생업에 쫓기는 탓에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을 틈타 퇴직연금 사업자는 수수료 취득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기금형 퇴직연금 등 새로운 정책을 적극 논의해 근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 체감 수수료율 ↑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가입 고객의 체감 수수료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 수익률은 평균 1.88%에 그쳤으나, 총비용부담률은 0.47%에 달했다. 총비용부담률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연평균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고객들의 체감 수수료율도 높아졌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을 기반으로 1년 만기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의 자산운용이 이뤄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의 운용수익률 또한 시장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 고금리 시절에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양호해 전체 적립금에 정률방식으로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연평균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소비자의 퇴직연금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상대적 민감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퇴직연금의 가입자와 사업자 사이의 협상력이 대등하지 않다는 점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고, 금융회사의 수수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 가입자의 수수료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다. 반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수수료의 구조 및 부과 금액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가입자에게 알릴 유인이 부족하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존재하지만,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는 대동소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퇴직연금 수수료율에 대한 적절한 절대수준을 규정하는 한편, 금융사들의 암묵적 담합에 의해 퇴직연금 시장이 구성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독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시장규모 200조' 점점 커지는데... 기금형 법안은 '폐기 위기'

퇴직연금 의무가입에 유치경쟁 치열

수익률 개선 위한 '기금형 연금제도' 국회 연일 파행에 법안통과 불투명 내달 문턱 못 넘으면 내년 5월 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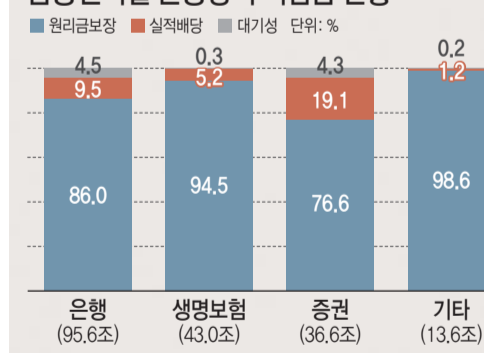
2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려는 은행, 증권 등 금융사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퇴직연금 시장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그러나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그치는 등 바닥을 치고 있다. 정부는 낮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등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퇴직연금 시장 200조...고객 잡아라

1일 정치,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권역별 운용방식 적립금 현황



지난 2017년 기준 50.2%에 불과한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골자다.

또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가입이 의무화된다.

정부의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말 190조원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200조원을 돌파했다.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강자는 은행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 비중은 은행사가

50.6%, 생명보험사가 22.7%, 증권사가 19.4%, 손해보험사가 6.1%, 근로복지공단이 1.1%로 은행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를 내리면서 기존 고객을 잡고 신규 고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 대신 수수료를 낮춰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걸도는 퇴직연금 법안...자동 폐기 위기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가 연일 파행을 거듭하면서 퇴직연금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업장 내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수탁법인 이사회)를 설립해 퇴직연금을 관리하도록 한 제도다.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같은 업종 내 사업장끼리 연합하면 연금기금처럼 '큰손'이 되는 만큼 운용사 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도입 취지다.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는 구조다. 외부 투자전문 기업 또는 기관 등 운용 위탁사에 퇴직연금 투자를 맡기면서도 노동자가 직접 연금 관리와 운용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지난해 4월 발의됐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못했다.

만약 올해 2월 임시국회 때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내년 5월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2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희주 기자 hj89@



[2020 밀레니얼이 온다] 비싸도 내가 좋으면 OK 소비트렌드 변혁 주도 04



Life

[라이프] '마이 펫'을 부탁해 보험부터 신탁까지 평생 동반금융 L4



3년연속 '인기정책' 역세권 청년주택 부족한 2%는 고가 임대료에 14㎡, 좁은 주거공간 '옥의 티'

2019년 시민들은 '서울시 10대 뉴스'로 친환경 교통수단 따름이, 공공 와이파이 S-Net 구축, 돌봄 SOS센터 확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미세먼지 정책,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등을 꼽았다. 이 중 3년 연속 10위권에 안착한 체감도 높은 정책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2017년 서울시가 10대 뉴스를 선정한 이래로 매년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시는 서울시의 주요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순위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해왔다. 온·오프라인 투표를 실시한 첫해에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총 투표수 17만9290표 중 4.2%인 7454표를 획득해 6위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총 투표수 28만5400표 가운데 4.3%인 1만2146표를 얻어 7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2019 서울시 10대 뉴스' 시민 투표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총 투표수 31만8268표 중 1만3972표



양재역 인근에 들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서울시

청년·신혼부부위한 주택비중 최대 70%, 임대료 절반 공급

시의회 "계획대비 실적 부진" 3년간 목표달성 절반 못미쳐

(4.4%)를 받아 7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2030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해왔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해 ▲

고가의 임대료 책정 ▲초기투자비 회수 장기화에 따른 사업 참여율 저조 ▲14㎡내외의 비좁은 주거 공간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사업 시행 3년차를 맞아 지난해 11월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분양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내놨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신혼 부부를 위한 주택의 비중을 40~70%까지 늘리고 이를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체 물량의 20%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하고 나머지 민간임대 주택은 주변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시는 개선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SH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SH 선매입형'은 민간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주택연면적의 30%를 SH공사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공급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되는 물량이 50%(선매입 30%+민간 특별공급 20%)로 전체 물량의 70%가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될 수 있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총 주택물량의 40%(기존 공공 주택 20%+민간 특별공급 20%)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5평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거 여건

도 개선했다. 1인 청년 주거면적은 14㎡에서 최대 20㎡로, 신혼부부용은 30㎡에서 최대 40㎡로 전용면적을 각각 6㎡, 10㎡ 확대했다.

시의회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하다"며 "이러한 공급 현황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불러오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지난 2018년 향후 5년간 5조 3074억원을 투입해 공격적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물량은 8만호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목표' 계획을 보면 시는 2019년까지 총 3만8000호를 공급했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시는 43개소에 1만7000호 공급(인가 기준)을 완료한 상태다. 목표 달성률은 44.74%로 당초 공급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의회의는 "명확한 규제 완화 기준의 객관성도 갖추지 못한 채 완화가 이뤄지는 것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며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주안점은 주택 가격 안정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새해 첫날 경복궁 풍경 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경복궁이 시민, 외국인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경자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58가지 '꿀팁'

녹색순환버스·신혼부부 주거지원

단독주택 등 재활용품 정책 전환 자연재난 보상금 최대 1000만원

서울 도심을 순환하는 녹색순환버스가 경자년 새해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노선은 총 4개이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의 반값인 600원이다.

청년수당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정책도 바뀐다.

또 서울시민 누구나 자연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제도, 정책을 소개하는 '2020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펴낸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1월부터 서울도심 주요지점을 잇는 '녹색순환버스'의 운영을 시작한다.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연계 노선 등 총 4개 노선이다. 운임은 일반 시내버스의 절반인 600원이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대출금의 이자 일부도 지원해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의 기준소득을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완화한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린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프로그램 대상 인원은 3만 명으로 늘어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활용품 수거 정책도 바뀐다. 7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상가는 목요일에 폐비닐만 배출해야 한다.

새해부터는 시민안전보험도 적용된다.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에서 최대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25

1월 2일 (목) 음력 : 12월 8일

수도권 날씨 -2 ~ 4℃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5/4, 동두천 -4/4, 가평 -5/4, 파주 -6/4, 서울 -2/4, 양평 -4/4, 인천 -1/4, 수원 0/5, 용인 0/5, 평택 -3/5, 백령도 1/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 29만건 신고접수 (8년간)

총 5191명 봉사활동 자발적 참여

서울시는 보행환경 불편사항을 찾아내는 '거리모니터링단' 총 5191명을 통해 지난 8년간 28만668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1일 밝혔다.

거리모니터링단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시민들이다. 이들은 보도블록 파손, 물고

임, 보행장애물 적치 등 일상생활 중 발견한 보행 불편사항을 신고해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보도블록 파손이 3만314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도로 시설물(6573건), 치수방재(4557건), 도로포장(2856건), 공사 중 불편(1380건)이 뒤를 이었다. 불법 주차, 불법 광고물, 소음, 무단쓰레기 투기 등 기타

신고 건수는 23만8178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총 625명의 거리모니터링단원이 보행 불편사항 3만8279건을 발굴해냈다. 공사장 불편이 1만2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올해에도 거리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서울시 보행정책과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시원서는 서울시와 각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지니야 우리
민준이 칭찬해줘!”



“우리 **민준**이 치카치카 정말 잘하네!”

핑크퐁의 목소리로 우리아이의 바른 습관을 길러보세요



GiGA Genie × 핑크퐁

핑크퐁 칭찬하기

스마트한 칭찬 육아법

핑크퐁의 목소리가 직접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며
칭찬해주거나 타이머 줄 수 있는 기가지니 핑크퐁 칭찬하기

Copyright © Smart Study Co., Ltd. All Rights Reserved.

